

I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용어정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범죄는 양적인 증가현상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조직화, 집단화, 흉폭화 등 악화일로에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청소년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歐美)의 선진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청소년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청소년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것은 최근의 청소년범죄가 몇 가지 특징 및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양적인 면에서 최근 10년간의 청소년범죄를 보면, 199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1년도에는 1992년도에 비해 31.9%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의 증가율(16.4%)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범죄백서, 2001).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및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청소년백서, 1999; 2000; 범죄백서; 2001).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범죄의 심각화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내일의 역군으로서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므로 이를 보다 올바르게 훌륭하게 육성하기 위해

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야 하겠다.

흔히 기성세대 혹은 부모들은 과거 자신들이 보냈던 청소년기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청소년기를 먼저 보냈으니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오늘의 청소년들 혹은 청소년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려 한다. 나아가 청소년범죄를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성인들의 과거경험을 통한 일방적인 사고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보냈던 과거의 청소년기와 다른 가정, 사회조건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청소년들과 다른 사고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과거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현대사회의 청소년범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기존연구(특히,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행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대처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청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의 대책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하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 관련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한다.

셋째, 청소년범죄 관련 기존연구(19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구)들을 고찰한다.

넷째,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존대책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범죄 관련 통계자료는 『범죄백서』, 『청소년백서』, 『경찰백서』를 활용한다.

둘째,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 관련 이론을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의 전문서적과 논문을 활용하였다.

셋째, 청소년범죄 관련 통계자료(1990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범죄유형별, 동기별, 가족관계별, 전과별, 공범관계별로 분류·정리하고 추세를 분석한다.

넷째, 청소년범죄 관련 기존연구를 청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별로 분류·정리하여 고찰한다.

다섯째, 청소년범죄에 대한 기존대책과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새로운 대책방향을 제시한다.

4. 용어의 정의

1)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행위(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소년비행

청소년비행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범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범죄행위)와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모두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이라 한다.

II .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2. 청소년범죄의 개념과 유형
3. 청소년범죄의 이론과 원인
4. 청소년범죄 관련 선행연구 고찰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청소년이 어떻게 건전하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시대 또는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청소년(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란 의미로써,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Nielsen, 1991).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소위 ‘성숙과정의 시기’, ‘성숙을 완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심신의 모든 부분이 아동의 상황으로부터 성인의 상황으로 옮겨지는 과도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란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가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와 성인기의 사이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법률적인 개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계 입법은 미성년자보호법(1961), 소년법(1988, 전문개정), 아동복지법(1981, 전문개정)등 청소년의 보호, 선도, 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1949), 학교보건법(1967), 사회교육법등 청소년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법령별의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이 다르다¹⁾. 그리고 이러한 법률들은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므로 청소년이란 용어와 연령구분이 서로 상이한 바, 입법내용의 임의성과 비현실성, 법적용상의 중복, 누락, 형평성의 결여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함병수 외,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구분은 법률 구분은 법률집행 등의 이유에서 필요하며 구분의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규는 ‘아동’, ‘소년’, ‘미성년’등 사용하는 명칭 자체도 다양하고 연령 구분도 다양하다. 민법은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육성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기본법 제 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육성위원회, 1988).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연령기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청소년백서』에도 청소년 인구의 연령대를 9세에서 24세까지로 잡고 있다.

2)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

1)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 자를 소년이라고 하고,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 하고, 민법 및 미성년자 보호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을 연소자, 15세 미만을 아동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십자의 경우 어린이 11세부터 13세를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적십자는 14세부터 19세로하며 대학적십자는 20세부터 23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기는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로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반항기2)’, ‘제2의 탄생기3)’, ‘질풍노도의 시기4)’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시기의 급격한 변화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동시에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독특한 발달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징은 크게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성호르몬인 안드로젠과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증가되어 매년 신장이 크게 증가하고 체중이 늘면서 여자의 경우 초경, 남자의 경우는 사정(ejaculation) 및 목소리의 변화라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기능을 갖게 되나, 정서적·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성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한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아동기의 인지적 능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계속 발달하게 되어 청소년기의 젊은이들은 아동기 시절보다 지적 과업을 더 빨리, 쉽게, 효과적으로 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인지적 발달은 추상적 사고능력과 논리적 추리능력이 신장되며,

-
- 2) 인격발달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유별나게 반항적 태도를 나타내는 시기. 제1의 반항기는 2세에서 7세까지이며, 제2의 반항기는 청소년기에 이유 없는 반항으로 나타난다.
 - 3)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생각이 범위가 넓고 깊어지며 자신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숙에 자신감과 신비감을 갖는다. 또한 자아의식이 성장하며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제1의 탄생이 신체적 탄생이라면, 제2의 탄생은 정신적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 4) 꿈과 이상, 실망과 좌절이 교차하는 청소년기의 격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까닭에 열정적이거나 걱정해 쉽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상상력의 발달로 인해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흥미와 동경을 하게 된다. 또한, 철학적인 사고가 싹트게 되므로 선악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치기준에 대해 탐구하며, 추상적인 경향의 확대로 말미암아 현실에 대해 모순을 느끼고, 이상을 추구하며 타인의 욕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시기이므로, 취미생활의 욕구, 창조의 욕구, 지적인 욕구를 갖는 특징이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우리나라 연령으로 보아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동년배 집단을 형성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집단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다. 즉, 가정중심의 보호적 생활습관을 탈피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혈육에서 탈피하여 동료집단과 맺어지며,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 자기 의식의 소중함을 지각하고, 지금까지의 부모 의존적,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소속감의 바탕도 가정과 부모에서 동료와 이성 등 그 외의 사회집단으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봉사의 욕구, 소속의 욕구, 우애·협동의 욕구, 남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특징을 들 수 있겠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와 발달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사회성의 함양인데, 이는 청소년 수련활동과 매우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다. 즉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은 한국청소년연맹 등 전국의 청소년

년 단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청소년범죄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범죄의 개념

청소년범죄는 청소년과 범죄의 복합개념으로 청소년⁵⁾의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할 뿐 아니라 범죄의 의미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의미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면 형벌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하는데, 청소년범죄란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⁶⁾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연령을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

5)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학문영역과 국가에 따라 정의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규는 해당법규에 따라 청소년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형법은 14세 이상을 형사책임능력자로,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을 요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청소년보호법은 만18세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적 차원에서 보면, 우선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초·중학교까지의 연령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버기스와 로스는 사춘기와 청소년개념은 서로 밀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보면, 12-20세까지의 급성장기간이 청소년시기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오즈벨은 청소년개념을 계속적인 성장과정으로 보았다.

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즉 14세가 되면 형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청소년이란 하나의 학문적 용어로 그 범위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비행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범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범죄행위)와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 비행이란 개념은 교육 가능성이 풍부하고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범죄

-
- 6) 우리나라에서는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범하면 소년법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규율을 소년법에서 하고 있다. 용어상으로 보면 청소년법이라고 해야 할 듯하지만 연소한 자라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전도 “소년법”으로 되어 있다.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 범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는 우범 또는 방임된 소년에 대하여도 그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사법적으로 교정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미국 소년법의 국친사상을 우리의 소년법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현상으로서의 청소년비행을 고찰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범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및 촉범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인범죄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뿐 아니라 책임성까지 갖춘 행위를 범죄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범죄라는 용어는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모두 범죄 범주에 포함시키며, 책임성의 요건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범죄행위, 촉범행위, 우범행위를 포괄해서 ‘비행’이라 하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와 촉범행위를 합해서 ‘범죄’라고 한다.

청소년범죄자의 개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년법(1988, 전문개정), 아동복지법(1981, 전문개정), 미성년자보호법(1961), 청소년보호법(1999) 등에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에는 범죄소년, 촉범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을, 촉범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란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각각 일컫는다(이상헌, 1997).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로 이른바 미아, 고아, 가출아동을 말한다. 미성년자보호법의 불량행위 소년은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범죄(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행위(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청소년범죄의 유형

공식적 형사사범은 소년범죄를 그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그리고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소년비행에는 가정 및 학교의 규범을 일탈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행위들이 포함되는 바, 통상적인 학술담론에서는 가벼운 폭력사용 등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문제행위와 음주, 흡연, 가출 등과 같이 자기 자신의 덕성을 타락시키는 문제행위로 대별한다. 또한 소년범죄 및 소년비행은 관심 초점이 행위주체인 소년의 성장교화에 두어지는 관계로, 과연 해당 소년이 범죄나 비행에 얼마나 빠져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바, 이러한 차원에서 간헐적 위반과 습관적 위반이 구별되어 논해지기도 한다.

(1) 내용에 따른 구분

공식적 형사사범이 소년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제시하는 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공갈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상해와 폭행이 가장 문제되는 소년범죄 유형이며, 소년범죄 일반을 대변할 만큼 발생건수

도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재산범죄에는 절도, 횡령, 배임, 장물, 사기 등이 포함되는데, 행위주체가 소년인 만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산범죄는 절도이다. 나아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범죄를 말한다. 발생비율은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그리 많지 않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만큼 관심의 초점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에 의한 교통사범도 만만치 않은 발생건수를 기록하면서 독자적인 소년범죄 유형으로 거론된다. 최근에 들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의 청소년 운행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소년범죄와 달리 소년비행은 주로 피해자 없는 규범일탈의 형태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즉, 소년의 나이에는 허용되지 않는 ‘어른 닮기’의 행동을 한다든가, 성인들의 타락한 문화를 분별심 없이 수용하여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음주,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은 전자의 예이고, 본드나 마약의 사용과 부도덕한 이성교제 등은 후자의 예이다. 나아가 소년의 문제행동이 피해를 야기하면 대부분 소년범죄로 취급될 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비행의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는 케이스도 있다. 소위 왕따 만들거나 문화파괴행위(vandalism)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일탈행동들에는 형사 사법적 처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간헐적 위반과 습관적 위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 중에는 그 횟수와 정도가 심각하여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위해 간헐적 위반과 습관적 위반을 구별하기도 한다. 즉, 전자는 우연한 기회에 행해지는 범죄 및 비행인데 반하여, 후자는 범죄 및 비행이 일상화된 경우를 말한다. 간헐적 위반은 우연적 상황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오락이나 허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습관적 위반은 비행하위문화의 산물인 경우가 많고 목표 지향적 특성을 지니며 전문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진지한 조치가 요구된다.

(3) 각종 청소년범죄의 유형들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소년백서』에서는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표 II-1>과 같이 강력범, 폭력범, 재산범, 교통사범,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에서는 크게 소년형법범(재산범, 폭력범, 강력범, 과실범, 기타)과 소년특별법범으로 나누고 있다.

각종 범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절도

절도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휴대하거나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기에 의하지 않는 가게 줌도둑, 자전거 도둑, 핸드백 날치기, 소매치기 및 자동차로부터 훔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사기

사기란 사람들이 타인을 그릇 판단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기환(詐欺漢)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기만과 허위로써 배반당하는 경우이다.

<표 II-1> 청소년백서에서의 청소년범죄 유형분류

범죄유형	내 용
강 력 범	살인, 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포함),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 사범 포함), 방화
폭 력 범	폭행·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범 포함), 공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포함), 기타(체포와 감금(특가법 포함), 협박, 약취와 유인(특가법 포함))
재 산 범	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포함),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포함)), 장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장물) 포함),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포함)
교통사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차량)
기 타	-

③ 폭행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를 뜻하는 폭행은 폭력행사의 결과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살인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행동양상에 있어서는 살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살인

살인은 강도살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행하는 분규나 말다툼의 결과로 나타난다.

⑤ 강도

폭력 혹은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살인 및 폭력범죄와 유사하나 범행의 목적이 금품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있다.

⑥ 강간

중죄의 하나인 강간은 여성의 동의 없이 완력을 사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방화

방화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타인 소유의 재산이나 자신의 것을 화재나 폭발물에 의하여 파괴하는 행위이다.

3. 청소년범죄의 이론과 원인

1) 청소년범죄의 이론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범죄 원인의 과학적 해명의 결과 이를 크게 소질론과 환경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질론에 의하면 청소년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인류학적 방법, 정신병리학 내지는 정신의학적 방법 등에 의하여 개인의 유전적 소질,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론에 의하면 범죄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 또는 가치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장해 내지 병리성과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학자들의 이론은 실로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어느 이론도 범죄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범죄현상의 어느 한 측면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범죄도 소질론이나 환경론 중 그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단순화 시켜 본다면 결국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개인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가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이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득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와 의지를 가졌기에 이러한 생득적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받음에 있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걸러지고 생득적 요인이 극복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능과 자유의지 또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한 받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인격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의 생활권에는 항상 사회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가정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많은 것을 전수시켜 주는 생활현장으로 청소년은 사회 집단 내에서 소속단체의 행동양식, 가치관, 생활규범등과 같은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사회 환경은 청소년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 소질론

① 정신박약론

정신박약론은 범죄자는 대체로 지능이 낮고, 법규범을 이해할 수 없어서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는 이론으로써 고달드(Henry H. Goddard)의 갈리카크 가계(The Kallikak Family)에 관한 연구에 의해서 범죄자 저능설이 발표됨으로써 많은 지지를 얻었으나 그 후 지능

검사법의 발달과 우드워드(M. Woodward)의 저지능과 비행(Low intelligence and Delinquency)등의 연구결과 범죄소년과 비범죄소년과의 지능의 차이는 근소하며 의미 있는 지능차이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이 견해는 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설명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웨슬러(David Wechsler)는 지능을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고 비행자 그룹에서 정상적인 청년그룹과는 다른 하위검사득점분포(subtest score distribution)의 특징을 발견하였다(정인석, 1988 : 289). 즉 동작성 검사의 지능의 언어성 검사의 지능보다 우수하며 동작성 검사 가운데서 비행청소년은 시각-동작의 협응(visual-motor coordination)에 있어서 지각적·분석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면보다는 시각-동작의 협응과 사회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면에서 득점이 높고 하위검사의 득점 분포에 있어서 평균에서의 이탈도가 크다. 이상과 같은 사실과 비행소년의 많은 경우가 사고보다 동작을 수단 삼아 자기 자신을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웨슬러(David Wechsler)의 지능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정신분석 이론

정신의학자인 프로이트(S. Freud)는 본래 모든 인간은 공격적, 파괴적, 반사회적 충동이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행위는 잘못된 어린시절의 훈련이나 부모의 무관심, 개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므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면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현, 1992). 특히 그는 비행이나 범죄행위 등 모든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격의 부조화 때문에 정신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것

이다. 이러한 갈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일종의 ‘검열기구’(censor) - “바라지 않는 요소를 무의식 속으로 억압함으로써 통일성과 조화를 억지로 의식적인 인격 안에 밀어 넣으려는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 - 로 자리 잡는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갈등적인 존재로 보고 자신의 이론을 구성하였다. 이 갈등은 ‘리비도’(libido)라고 하는 본능으로 집약되는데, 리비도와 함은 사람의 욕구, 자극, 충동을 통제하는 힘을 의미한다. 후에 그는 인격을 균형 있게 만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드’(id)는 생물적 또는 심리적 충동이나 자극을 모아놓은 무의식의 부분이다. 이 이드는 주로 성적 충동인 리비도를 포함한다. ‘초자아’(super-ego)는 자기비판과 의식을 포함하는 무의식의 부분이다. 초자아는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화되고 내면화된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인격의 의식적인 부분이 바로 ‘자아’(ego)이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할 때면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가 그 갈등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한다. 이 갈등들은 나중에 콤플렉스 또는 범죄행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범죄란 ‘억압된 인격적인 경험을 대신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억압된 갈등을 풀어주는 것이다.

③ 정서장애 이론

정신분석사상을 계승한 Healy와 Bronner(1936)는 범죄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정서장애에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본래 가족 또는 다른 사회관계에서의 안전감, 특정의 사람이나 집

단에서 용인되어지는 감정,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인정되어지는 일, 특히 어딘가에 적응하고 있다는 감정 등에 대한 욕구나 원망(願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나 원망이 방해받게 되면 정서적 불만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주로 가정에서 충족되어지지 않은 인간관계는 정상적인 충동이나 욕구, 원망이라는 감정 흐름의 방해물이 된다. 따라서 불만, 열등감, 상실감 등의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키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활동을 찾게 되는데, 불량한 교우, 특별한 유혹에의 접촉, 좋지 않은 책을 읽어서 얻어진 비행의 이미지와 결부되어서 범죄에 나아가기 쉽다.

대부분의 범죄소년들은 비범죄소년들과는 달리 반항적이고 권위에 대해서 양면 가치적이며, 자기가 만족할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나 원한감을 가지고 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적의와 의혹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파괴적·가학적인 경향, 정서변이 등과 같은 성격 특성을 갖게 되고 정서적인 갈등과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기과시나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사회 환경론

① 사회통제이론

뒤르켐(Durkheim)의 영향을 받아 허스키(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개인의 사회에 대한 연대(bond)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이탈행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손호중, 1992 : 16~17). 즉 모든 사람은 규범을 준수하기 보다는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성악설적인 입장의 인간관에서 사람이 규범을 어기고 싶은 충동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으나 사회통제의 결과 사회와 유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러한 유대가 약해

지거나 끊어지면, 즉 사회통제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게 되면, 그 개인은 거의 자동적으로 규범을 어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머튼(Merton)은 어떠한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사회가 구조적인 긴장을 행사하여 그 결과 비행을 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는데, 허스키는 역으로 비행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긴장은 없으며 오히려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만이 있다는 것이다.

허스키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네 가지 차원으로 보고 네 가지의 사회적 결속을 애착, 수용, 참여 그리고 신념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각각의 사회적 결속이 강할수록 비행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허스키의 사회통제이론은 외적인 통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 통제 가운데 가정과 지역의 소속감과 유대감이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주위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규범을 어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가족성원이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통제가 있으면 규범을 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족성원과 얼마나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에 따라 범위를 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② 사회긴장이론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뒤르켐의 아노미이론에 뿌리를 둔 머튼의 일탈이론은 머튼의 주장과 같이 문화적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열망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뒤르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한다. 대신에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학습되어진다고 주장한다(김한곤, 1992 : 111~112). 머튼은 미국과 같

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달성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학습되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물질적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사람들만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그러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역기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일부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문화적 목표를 비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일컬어 머튼은 일탈행위자라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일탈의 형태를 혁신형, 의례형, 패배형, 반란형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네 유형 가운데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문화적 목표와 합법적인 수단 둘 모두 위반하면서 일탈행위를 통하여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형태의 일탈을 패배형이라 부른다.

문화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청소년 비행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Cloward and Ohlin(1963)은 일탈에 대한 머튼의 일반 이론을 보다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서 청소년들의 비행에다 적용시켰다.

머튼은 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비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하게 된다고 가정한 반면에 Cloward and Ohlin은 머튼과는 대조적으로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그 이상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목표는 물질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성취도와 같은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중시 풍토나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하에서는 공부에 대한 학교와 가정에서의 과중한 기대 및 압력은 청소년들

이 일탈행위와 같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는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준호, 1990 : 113~143; 장상희, 1992).

③ 비행하위문화이론

코헨(A. K. Cohen)은 1955년에 출판된 ‘비행소년’이란 저서에서 어떻게 해서 비행하위문화가 일어나는가의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코헨은 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후, 일탈행동이 하류층의 남성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갱 비행이 가장 흔한 형태임을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비행이 비공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행동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성인범죄와는 달리 청소년 갱들은 그들의 필요에 상관없이 절도를 하고 악의적으로 재물을 부수고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고 중산층의 가치관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 코헨은 머튼의 아노미이론으로는 이러한 비공리적 비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머튼의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얻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이 범하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실상 불법적 방법으로 수입을 얻거나 물질적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행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를 얻기 위한 지위좌절에 대한 비공리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머튼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성공이란 문화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코헨은 청소년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지위라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년들이 모두다 지위를 놓고 똑같이 경쟁할 수는 없다. 하류층 소년들은 사회구조 내에서의 위치로 인해 물질적·상징적 이점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끼리만 경쟁한다면 바탕이 대체로 균등하지만 중산층 소년과 경쟁할 때는 하류층 소년이 불리하다. 하류층 소년들이 통상함은 물론이고 하류층 소년이 달성하

기 어려운 일련의 기준의 ‘중산층의 잣대’를 상의하는 성인들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경쟁의 와중에서 소년들은 동료학생과 교사들 가운데서 지위추구의 바탕을 잃게 된다. 그러한 상실감을 크게 가진 학생은 지위 좌절감을 겪는다.

코헨은 프로이드의 역반응(reaction formation) 심리기제(불안을 극복하려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중산층 가치관에 대한 과잉 적대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하류층 자녀들이 이 같은 지위 좌절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일어난다. 이때 중류계층의 가치에 계속해서 동조하는 경우에는 동료들 상이에서 낮은 지위에 만족해야 한다. 한편 일부 소년의 경우 ‘중산층의 잣대’에 대한 적응이 지위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해결책은 지위 획득의 주거지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지위 기준을 공동으로 확립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 형태인 비행하위문화가 하층 지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다. 이 같은 비행하위문화가 갱 비행의 비공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어준다. 요컨대 많은 하류층 자녀들은 지위목표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무력함이 가져다주는 좌절감을 겪은 후, 지위의 저항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중산층의 가치체계를 버리고 다른 하류계층과 동료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항규범을 만든다. 그 결과 하위문화가 형성되어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④ 차별접촉이론

차별접촉이론은 개인의 심리내지 사회심리학적인 행동의 동기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 이론인바, 서더랜드(Sutherland)는 범죄는 유전

되거나 행위자에 의해 고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 진다는 사회학적 학습이론을 개발하고 있다. 즉 범죄는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범죄행동을 학습하는 것은 범행의 기술 그 이상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을 위반하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러한 태도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더랜드는 범죄의 원인을 범죄발생의 순간에 작용한 과정들로서 설명하는 것과 범죄자의 과거사에서 작용한 과정들로서 설명하고, 차별접촉이론은 후자의 역사적 또는 발생적 설명방법에 해당된다고 주장 한다(Sutherland and Cressey, 1966 : 79~80).

머튼의 아노미이론이 사회구조적으로 일탈발생비율의 문제를 논했다면, 이 이론은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탈자가 되는데 반해 다른 사람은 일탈자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⑤ 문화전파이론

Shaw와 McKay(1942)는 범죄자의 발생을 생태학적으로 관찰하였다. 도시의 지도상에 범죄가 일어난 장소나 범죄자의 거주지를 도표로 작성하여 범죄 다발지역과 그 지역의 여러가지 시화적인 특징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찾아보고, 범죄와의 관련 요인을 발견했다. 대도시에서 범죄의 발생률은 지구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범죄율은 도시의 중심가나 상공업 지대 사이에 가까운 곳, 저렴한 임대 주택이 많은 빈곤 지역이 높다. 즉,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교외로 나갈수록 범죄율은 낮아진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과에 따라 주민들이 바뀌어도 범죄율은 변함없이 높아 범죄의 발생과 장소의 함수 관계를 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문화에 범죄를 일으키

는 고유요소가 있으며, 범죄와 친화적인 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인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는 아동의 훈육이나 기타 행동 양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가 지역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준법적이며, 사회복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 청소년들은 준법적인 가치체계와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준법적인 가치세계에 적합한 행동 양식으로 고정된다. 비록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접촉하여 학습할 기회가 없으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행동 양식은 확립되지 않는다. 범죄 다발지역에서도 준법적인 가치체계는 존재하지만, 이와 대립되는 반사회적인 가치체계나 여러 가지 행동기준과 규범이 있으며, 이 지역 청소년들은 어떠한 행동기준에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지역사람들은 저학력, 빈곤, 유색, 인종 등의 불리한 조건이 널리 깔려 있으며, 성실하게 전통적이며 준법적인 가치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적다. 그래서 이들은 목표 달성이 쉬운 반사회적 가치를 선택하기가 쉽다. 이 반사회적 가치체계나 태도는 반사회적 규범을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전달되어진다.

⑥ 낙인이론

낙인이론을 청소년범죄와 관련 지워 생각해보면 낙인이론이란 어떤 범죄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론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규범을 어길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탈자라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찍히지 않는다. 낙인이론이란 어떤 일탈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론이다. 낙인이론가들의 관심은 일탈행위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

리미트(Lemert)는 일탈을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나누고 후자에 깊은 관심을 둔다. 그는 일차적 일탈이 반드시 이차적 일탈로 되는 것은 아니나 일탈자로 공식적인 낙인을 받게 되면 일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심정택, 1991 : 158).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는 물론 관습적 도덕성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미 도덕성과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들에게 일탈적 낙인을 붙이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낙인이 붙게 된 일탈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낙인이 붙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일탈자와 하등의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일탈자로서의 낙인은 도덕적 열등성을 부과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일탈자가 비일탈자에 비해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을지라도 우리사회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방법상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탈자로서의 낙인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탈의 낙인이 그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어느 개인이 일탈자로서 낙인이 붙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사회 통제기관과 사회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합법적 기회로부터 점점 제외되고 격리되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과 유사한 낙인 소유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이 관습적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일탈적 생활에 침잠하게 되며 자신을 내쫓긴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청소년범죄의 원인

청소년범죄의 원인을 크게 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나누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근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및 집단화, 재범 및 여성범죄의 증가, 사이버범죄의 증가 현상과 관련이 깊은 주요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요인

청소년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먼저 개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의 내적 개인특성으로 충동적 성향은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언급되어져 왔다. 충동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으며, 자신의 욕구를 지연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충동에 의해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Gottfredson and Hirschi, 1990; Moffitt, 1993).

충동적 성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활동수준이 높고, 주의력이 산만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모험을 즐기기를 좋아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되고 있다.

(2) 가정요인

가정은 부모의 애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로서 청소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며 활동과 생활의 본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요인은 청소년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즉 청소년범죄자들은 가정환경에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가정의 부정적 환경요인은 청소년들의 불만과 긴장을 야기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를 야기하고, 비행친구와 사귀게 하는 그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동성, 인지능력의 결함,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등 청소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요소들도 결국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3) 친구요인

청소년범죄에 있어서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폭력서클 혹은 범죄집단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은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범죄에 우호적인 태도와 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친구의 유혹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불량서클이나 범죄집단 혹은 폭력하부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범죄의 위험성은 더하다.

(4) 학교요인

청소년들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학업성적이 부진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Hawkins et al., 1992).

학업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의 가치를 거부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중퇴를 하거나 급기야는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학교에 애착이 낮고 공부를 포기한 청소년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제도여건 하에서는 학교요인이 더욱 더 청소년들의 범죄를 유발시키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지역사회요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청소년범죄의 원인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거주지역, 동네의 특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Shaw와 McKay가 제시했던 사회해체이론이 최근 큰 지지를 받으면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유대와 결속력, 통합도가 높고 행동기준이 있어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적 장치가 있을 경우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지만, 그러한 통합력과 통제적 기제가 상실되어 있는 지역은 범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Sampson and Groves, 1989; Bursik and Grasmick, 1993).

해체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하위문화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지역이 된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6) 최근 청소년범죄 추세와 관련 있는 주요 요인들

최근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재범 및 여성범죄의 증가, 사이버범죄의 증가 등과 관련이 깊은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령과 범죄

인간은 각 연령기에 따라 그 신체생리조건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함과 동시에 그 정신심리상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느끼게 마련이다. 또 그와 더불어 사회적 생활조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서더랜더(Sutherland)는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각국의 일반적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아홉 가지의 결론을 유도했다(Sutherland and Cressey, 1955). 첫째, 전 범죄를 통하여 최고 범죄연령은 사춘기 또는 그 직전인 것 같다. 둘째, 그러나 최고 범죄연령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죄종(罪種), 성별, 장소, 시간에 따라 변한다. 셋째, 최고 범죄연령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편이다. 넷째, 초기비행의 연령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 비행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초기비행의 연령도 낮은 편이다. 다섯째, 각 연령층의 사람이 가장 잘 범하는 범죄의 종류는 장소에 따라 다르다. 여섯째, 전 범죄 및 각 죄종에 있어 범죄발생률은 최고 범죄연령기에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한다. 일곱째, 각 연령층의 범죄율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여덟째, 재범의 가능성과 초기부터 재범까지의 기간은 초기의 연령에 따라 변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연령이 낮을수록 재범 가능성은 크고 그 기간은 짧은 편이다. 아홉째, 소년비행은 성인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오늘의 비행소년은 반드시 내일의 성인범죄자라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각 연령기에 따라 그 신체생리조건 및 정신심리상태, 그리고 그 사회적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율 및 범죄와의 친근도(親近度)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② 도시화와 범죄

현대사회는 도시화를 그 특징의 하나로 하고 있다. 도시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인구의 대량밀집현상이다.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농촌과 소도시로부터 인구의 대거 도시로의 이입과 더불어 도시는 범죄의 소굴이라는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도시의 범죄발생률은 도시의 규모(주로 인구의 수)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강도발생률은 소도시보다 20배에 달하고 있는가 하면 우

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범죄발생건수의 분포비율은 61 : 39이다. 한편 인구의 도시집중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등 촌락지방의 인구의 희소화(稀少化)를 초래하게 되며, 그 결과 그곳의 범죄문제는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③ 교정기관과 재범

청소년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깨뜨리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그들 개인에게 있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에 대한 교정(correction)과 처우(treatment)의 의의도 그들의 범죄성향을 제거하고 수정하여, 개인적으로는 삶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배우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의 위치에서 보람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rehabilitation)를 도와주는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용 인원의 과다, 기능 및 처우내용의 미분화, 직원들의 자질부족 등 교정여건의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정시설내서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을 가르치고 조장시켜 역효과를 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이 오히려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설내의 처우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소년원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든지 형집행정료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가 대체로 일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④ 여성과 범죄

전통적으로 여성의 범죄 비율은 남성의 10~20%에 불과한 낮은

편이지만, 1970년대 이후 여성권익의 성장이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 규모의 확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동적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보통 범죄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범죄의 원인제공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돕는 경우가 남성에 비하여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범죄는 반사회적 성격도 약하고 동기와 수단의 측면에서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숨은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에 비해 폭이 좁고 대개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낙태, 유기죄 등이 남성에 비해 많고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명예에 관한 죄, 간통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강도, 폭행, 살인 등의 폭력 범죄나 강력범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인터넷과 범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6월 기준으로 청소년의 90.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도의 조사연구(윤영민; 2000)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중 8명은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고, 또 숙제나 공부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또 MP3 다운이나 게임, 채팅, 연예/스포츠, 정보검색, 동호회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청소년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행동이다. 사이버세계는 청소년들에게 시야를 넓게 해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부작용

용의 하나가 청소년의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 공간과 함께 개인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 습득과 신속한 의사 전달 등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한편,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또 다른 범죄공간으로 이용되는 단점을 가지기도 한다. 사이버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범죄유형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경찰백서(2000)』에 따르면 1999년에는 1,693건의 컴퓨터관련 범죄가 발생하여 1997년 123건, 1998년 397건에 비해 4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그 중 사이버테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해킹사건의 경우 1997년 64건, 1998년 158건, 1999년에서 572건이 발생하여 국민생활의 신경망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매년 그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청소년범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크게 청소년범죄의 동향 및 특징을 다룬 연구와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방지대책을 다룬 연구로 구분하여 기존연구들을 고찰하였다.

1) 청소년범죄의 동향을 다룬 기존연구

먼저 청소년범죄의 동향을 다룬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범죄의 주요 변화추세와 특징을 시대별로 고찰한 김준호 외 5인(200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동향에 대

하여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한 인구비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정치·사회·경제적 변동과 맞물려 특정 시기에 그 증가폭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형법범의 증가속도보다는 특별법범의 증가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주도한 것은 1980년 이후의 교통관련위반사범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성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인에 비해서 범죄참여의 정도는 낮지만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둘째, 형법범의 죄명별 구성동향을 보면 형법범의 경우 재산범의 비율은 감소하고 폭력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소년범죄의 폭력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형법범의 연령을 보면 12세~13세와 18~19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저연령 일수록 재산범죄의 비중이 높고, 고연령 일수록 폭력범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력범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춤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죄종별로 강도범죄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강력범죄자의 연령구성의 변화에서도 역시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폭력범의 경우에는 강력범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세가 주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것을 주도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었다. 연령구성은 2000년도에 경찰의 대응활동의 영향 때문에 18~19세 연령층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14~15세와 16~17세 연령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재산범의 경우에는 1980년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5년 이후에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범죄의 대부

분은 절도범인데, 성인의 경우 경제수준의 향상과 함께 절도범죄가 줄어드는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절도범죄가 단순히 경제적 목적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해준다. 또한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기범죄는 성인범죄라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청소년의 지능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소년범죄자의 환경 및 개인적 특성을 보면 하류계층 및 결혼가정 출신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 정상가정 출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 및 전과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신분 소년범죄자와 고학년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취학률이나 진학률의 증가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범죄의 양태를 시대별로 고찰한 염동훈(1996)의 연구에서는 1970년대까지의 청소년범죄의 변화양태와 1980년대 이후의 청소년범죄의 변화양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는 비약적 경제개발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유신헌법에 따른 군사독재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가내의 빈부 격차를 극대화시켰고 계층간의 위화감이 증대하였던 시기이기도 하며 특히 청소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격차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사회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부모들에 대한 귀속적 지위가 지인들의 또래집단간의 위화감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급적 특성에 입각해서 형성되는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은 하위집단으로 갈수록 일탈적 성향이 강해지며 반사회적 적대감과 경제적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우범집단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 진행되었던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정책과 냉전선상의 세계정세에

따른 문화적 폐쇄성이 사라지면서 미국 등 서구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서구문화 유입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을 과거보다는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새로운 경쟁논리에 휩싸여 과도기적 문화지체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가치관과 생활태도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절대적 빈곤이나 근로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혹은 착취적 임금구조가 사라지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청소년범죄의 형태를 단순히 경제적 빈곤이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즉 1980년 이후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제 청소년범죄나 비행이 단순히 생존권적 문제로 혹은 계급적 부적응 현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범죄의 주요특징과의 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1995년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8~19세의 범죄건수와 범죄율의 감소 및 15세~17세의 범죄건수와 범죄율의 증가에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1990년 이후에 14세, 15세, 16세의 범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둘째, 지난 30여 년간 범죄 청소년들의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 높은 교육열에 따른 전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범죄자의 학력이 변화양태는 불취학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중학교·고등학교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태는 청소년범죄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상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점차 더욱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청소년범죄의 재범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 경력이 높은 청소년들에 의한 재범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넷째, 가정환경과 비행에 대한 연구의 특징은 가정의 구조적 요인에서 기능적 요인으로 전환, 경험적 연구에서 이론적 설명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인 결손가정, 가족의 수, 형제순서 등의 요인과 비행과의 관계를 다루었던 연구내용은 점차 가정의 기능적 요인인 가정에서의 사회화, 생활양식, 가족관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양육방식 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다(기광도, 2000).

2)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방지대책을 다룬 기존연구

청소년범죄의 주요원인(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별 대처방안을 다룬 기존연구와 이들 원인을 종합적으로 다룬 기존연구들을 고찰하였다.

(1) 개인요인 관련 기존연구

청소년범죄자들은 충동적이고, 높은 활동성을 지니며, 문제해결능력과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기술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왔다. 따라서 충동적 성향을 바꾸고, 행동하기 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며, 대인갈등상황에서 협상기술과 문제해결의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목했는데, 치료과정에서 보상과 벌, 모델링의 방법을 통해 치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를 조절하기 위한 화조절 인지훈련도 문제 아이들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처럼 인지행동치료방법은 그 동안의 연구에서 여러 개인치료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ipsey, 1992; Hollin et al., 1995; Kazdin, 1997).

대안적 사고증진 전략(Greenberg et al, 1995)과 사회능력 증진 프로그램(Weissberg et al., 1997)은 청소년들의 인지능력개발과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폭력을 막고자 갈등해결과 화 조절을 위해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도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생각우선(Larson, 1992) 화 조절과 아동들의 두 번째 단계(Grossman et al., 1997) 교과과정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였다.

(2) 가정요인 관련 기존연구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 프로그램이나 혹은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방법을 지도하려고 했던 Patterson과 동료들(1982)에 의해 주도된 부모관리훈련 프로그램에 따르면 대부분의 문제청소년들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지도하였는데,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자녀를 감독하며,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적절한 보상과 벌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모관리훈련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실험연구에서 밝혀져 왔다(Dishion et al., 1992; Patterson et al., 1992).

부모가 개입되는 또 다른 가정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치료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가족성원들 간의 상호행동과 의사소통방식 등을 해

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는다. 이에 전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상호작용패턴을 변화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을 갖고 의사소통 상에 협상하는 방법, 일정 규칙을 정하고 상호 강화의 방법을 습득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가족치료는 청소년범죄 예방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Alexander, 1994; Tolan and Guerra, 1994).

(3) 친구요인 관련 기존연구

비행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범죄에 우호적인 태도와 가치를 학습할 기회가 많아지고, 또한 친구의 유혹이나 혹은 압력에 의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불량서클이나 범죄집단 혹은 폭력하부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범죄의 위험성은 더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범죄집단을 해체하고 청소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범죄집단들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처는 하나의 대처 전략이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전략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되어 왔고 경찰에 의한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pergel, 1995; Rush, 1996).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처전략은 비행친구와 사귀거나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예방의 측면에 있다고 주장된다.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가정과 학교에서의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인지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고도 주장된다(Tremblay et al., 1992). 인지능력과 사회기술이 부족한 아이들은 친구의 유혹에 혹은 압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과 휩쓸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학교요인 관련 기존연구

학교요인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학업부진과 적응 실패 이외에도 학교공부에 있어 노력부족, 학교선생과 학생들의 부적절한 관계, 그 밖에 학교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주목해 왔다. 총체적 교육을 통한 긍정적 행동프로그램(Gottfredson, 1986)은 학교관련 여러 요소들을 개선하려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선생들에게 학급규칙을 세우게 하고 효과적인 학급관리방법을 훈련시키게 하는 것 이외에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관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에 주력했다. 또한 학생들이 교과목 이외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자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으나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었음이 보고되었다.

(5) 지역사회요인 관련 기존연구

사회해체이론가들은 청소년범죄의 원인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부적응 측면들의 그 근원이 되는 지역차원의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범죄의 대책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 주요 정책사항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Hope, 1995; Rosenbaum et al., 1998; 최인섭 · 진수명, 1995).

시카고지역 연구는 그 대표적인 연구로,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빈곤하고 해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자조적 조직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늘리며, 지역내 범죄집단을 통제하고, 지역의 환경을 청결히 정화하고, 성인들이 출입하는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환경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시카고지역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소 긍정적임이 밝혀져, 실험이 실시된 지역의 청소년들의 재범율은 낮아졌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Schlossman and Sedlak, 1983).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그 이후에도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지역차원의 프로그램이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막고 건전한 친구와 접촉하게 하며 건전한 놀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에 기여했고, 또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방지하여 비행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McKay(1993)는 1971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청소년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종합적 예방 및 방지대책 관련 기존연구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방지대책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이 이러한 대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종합적인 예방은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사전적 예방에서부터 위험청소년, 그리고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범죄의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청소년들에게는 문제해결능력, 대인갈등 해결 능력이나 대안

적 사고능력, 그리고 화 조절 등의 기술을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개설을 통해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반청소년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관리훈련이나 적절한 양육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가정환경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시애틀 사회발전연구(Hawkins et al., 1992; O'Donnell et al., 1995)는 그 대표적인 연구가 된다.

위험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서는 상담가나 치료자가 문제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그들에게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행동치료를 하거나 혹은 그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부모훈련이나 가족치료 등을 통해 문제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아이들에 대한 종합적 프로그램의 효과는 아동발달연구(Battistich et al., 1996)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처우에 있어 종합적 대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Henggeler와 그 동료들의(1992, 1997) 가정과 이웃보호연구(Family and Neighborhood Services Project)가 있다. Henggeler와 동료들의 다체계적 치료(multi-systemic therapy)는 청소년들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후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 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여러 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제시해 왔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혹은 상담가

를 배치하거나, 또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적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훈련,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학업적응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시카고지역 연구에서도 지역 내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는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듯이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으로서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y partnership)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면서(Blagg et al., 1988; Sampson et al., 1988; Crawford, 1994)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기관 협력체계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비공식 사회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국가기관과 비공식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범죄예방 전략을 강구한다.

종합적 지역사회 프로그램(Kelling et al., 1997)은 또 다른 대표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정보 이외에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지역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Ⅲ .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추세분석

Ⅲ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2. 청소년범죄의 추세분석

Ⅲ.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추세분석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1) 일반현황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13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전체범죄의 발생·검거현황(1990년~2002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	검거인원	총 인 구 (단위:1,000명)	인구비
1990	1,171,380	1,047,760	89.4	1,326,775	42,793	2,737
1991	1,230,118	1,130,262	91.9	1,418,168	43,268	2,843
1992	1,241,102	1,135,146	91.5	1,451,942	43,663	2,842
1993	1,356,914	1,298,637	95.7	1,656,113	44,056	3,080
1994	1,373,407	1,246,582	90.8	1,582,428	44,453	3,090
1995	1,399,085	1,269,375	90.7	1,599,930	44,850	3,119
1996	1,494,846	1,358,982	90.9	1,681,321	45,248	3,304
1997	1,588,613	1,452,097	91.4	1,802,720	45,991	3,454
1998	1,765,887	1,632,678	92.5	2,010,814	46,430	3,803
1999	1,732,522	1,651,896	95.3	2,081,797	46,858	3,697
2000	1,867,882	1,664,441	89.1	2,126,258	47,274	3,951
2001	1,985,980	1,763,346	88.8	2,234,283	48,022	4,135
2002	1,977,665	1,826,852	92.4	2,267,557	48,518	4,076

주 :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감.

2. 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는 1990년 1,171,380건에서 2002년 1,977,665건으로 지난 13년간 약 1.6배 증가하였고, 인구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도 기간 중 2,737에서 4,076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1,171,380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

년에 1,985,980건으로까지 증가 하였다가 2002년에는 1,977,665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검거건수는 1990년 1,047,760건에서 2002년 1,826,852건으로 지난 13년간 약 1.7배 증가하였고, 검거율도 1990년 89.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는 95.7%까지 증가하였다. 1994년에는 90.8%로 감소하였으며 1996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1997년 들어 다시 91.4%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까지 95.3%로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에 들어 다시 감소하여 2001년에는 88.8%로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에는 다시 92.4%로 증가하였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13년간의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발생·검거현황(1990년~2002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	검거인원	총 인 구 (단위:1,000명)	인구비
1990	683,474	572,826	83.8	827,993	42,793	1,597
1991	728,570	638,636	87.7	905,137	43,268	1,684
1992	739,154	641,569	86.8	927,226	43,663	1,693
1993	842,705	789,796	93.7	1,126,678	44,056	1,913
1994	870,758	768,491	88.3	1,079,047	44,453	1,959
1995	903,718	777,845	86.1	1,080,074	44,850	2,015
1996	941,968	815,966	86.6	1,116,557	45,247	2,082
1997	934,933	805,764	86.2	1,129,933	45,991	2,033
1998	1,081,669	957,946	88.6	1,310,947	46,430	2,330
1999	1,104,946	1,027,390	93.0	1,431,882	46,858	2,358
2000	1,203,467	1,012,148	84.1	1,447,522	47,274	2,545
2001	1,216,504	1,004,203	82.5	1,447,790	48,022	2,533
2002	1,158,144	1,017,112	87.8	1,432,853	48,518	2,374

주 :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감.

2. 인구비는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 683,474건에서 2002년 1,158,144건으로 지난 13년간 약 1.7배 증가하였고 인구비 발생건수

도 기간 중 1,597건에서 2,3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1990년 683,474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1,216,504건으로까지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 1,158,144건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검거건수는 1990년 572,826건에서 2002년 1,017,112건으로 지난 13년간 약 1.8배 증가하였다.

2) 형법범 현황

지난 13년간 형법범의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형법범의 발생·검거추이(1990년~2002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1990	240,145	-0.9	174,223	72.5	263,683
1991	241,667	0.6	185,251	76.7	280,843
1992	258,176	6.8	205,282	79.5	312,218
1993	287,451	11.3	263,922	91.8	404,016
1994	325,343	13.2	264,074	81.2	383,308
1995	361,175	11.0	292,734	81.1	410,397
1996	404,965	12.1	330,653	81.6	440,533
1997	397,580	-1.8	316,758	79.7	434,669
1998	452,260	13.8	375,144	83.0	526,489
1999	462,253	2.2	410,226	88.8	571,211
2000	523,609	13.3	378,781	72.3	547,125
2001	553,673	5.7	393,858	71.1	568,149
2002	572,644	3.4	469,175	81.9	665,969

주 : 범죄분석.

전체 형법범의 2002년 발생건수는 572,644건으로서 13년 전인 1990년 240,145건에 비하여 약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건수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보면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대폭 감소에 따라 전체 형법범의 증감율이 1989년을 제외하고는 1982년 이래 1990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 199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래 1993년 11.3%, 1994년 13.2%, 1995년 11.0%, 1996년 12.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1997년 들어 1.8% 감소되었고,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체제가 시작된 이후 1998년에는 13.8% 급증한 후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3.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검거율을 보면 1993년 91.8%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대체로 80%대의 검거율을 유지해 왔고, 2000년과 2001년도에는 각 72.3%, 71.1%를 기록하며 부진한 검거율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81.9%로서 약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 특별법범 현황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13년간의 전체 특별법범의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은 <표 III-4>와 같다.

특별법범은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에 있어서 형법범에 비하여 그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발생건수는 1990부터 199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기록하다가 1996년에는 4.0%, 1997년에는 9.3%, 1998년에는 10.3% 각 증가하였고 1999년에는 다시 3.3% 감소한 뒤 2000년에는 다시 5.8%, 2001년에는 6.5% 증가하다 2002년에는 17.6%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3년 전인 1990년의 발생건수와 비교하여 보면 2002년에는 1,180,270건으로서 1990년의 931,235건의 비해 약 1.3배 증가하였다.

<표 III-4> 특별법범의 발생·검거현황(1990년~2002년)

구분 년도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1990	931,235	12.0	873,537	93.8	1,063,092
1991	988,451	6.1	945,011	95.6	1,137,326
1992	984,926	-0.4	929,864	94.4	1,139,724
1993	1,069,463	8.6	1,032,284	96.5	1,252,097
1994	1,048,064	-2.0	982,508	93.7	1,199,120
1995	1,037,910	-1.0	976,641	94.1	1,189,533
1996	1,089,881	4.0	1,028,329	94.4	1,240,788
1997	1,191,033	9.3	1,135,339	95.3	1,368,051
1998	1,313,627	10.3	1,257,534	95.7	1,484,325
1999	1,270,269	-3.3	1,241,670	97.7	1,510,586
2000	1,344,273	5.8	1,285,660	95.6	1,579,133
2001	1,432,307	6.5	1,369,488	95.6	1,666,134
2002	1,180,270	-17.6	1,146,498	97.1	1,233,199

주 : 1. 범죄분석.

2. 교통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포함.

2. 청소년범죄의 추세분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근 범죄현황 및 추세를 파악·분석하기 위해여 본 연구에서는 『범죄백서』, 『청소년백서』, 『경찰백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 『범죄백서』 자료를 활용한 분석

『범죄백서』에서 청소년범죄(소년범죄)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14세(형사책임연령)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동 제3호에 정한 우범(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 없는 가정이탈, 불량교제 등 그 자체로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현황

<표 III-5>는 지난 13년 동안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검거인원 기준)중 점유비율 등을 분석한 것이다.

<표 III-5>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중 점유비율(1990년~2002년)

구분 년도	전체소년범	전년대비 증감율(%)	전체범죄인중 점유비율(%)	소년형법범	소년 특별법범
1990	105,567	-2.3	8.0	82,446	23,121
1991	102,537	-2.9	7.2	72,413	30,124
1992	99,301	-3.2	6.8	67,553	31,748
1993	110,604	11.4	6.7	74,465	36,139
1994	108,342	-2.0	6.8	76,534	30,866
1995	124,244	14.7	6.9	85,461	38,783
1996	137,503	10.7	7.2	87,084	49,611
1997	150,199	9.2	7.6	95,666	54,190
1998	148,558	-1.1	6.8	99,552	48,946
1999	143,155	-3.6	6.2	93,261	48,990
2000	143,637	0.3	6.8	94,465	48,308
2001	130,983	-8.8	6.0	82,746	47,411
2002	115,423	-11.9	5.5	75,982	39,441

주 : 범죄분석.

전체 소년범은 10만명을 전후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5년부터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1997년에는 150,199명이 되었다가 1998년부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115,423명으로 감소하였다. 13년 전인 1990년의 전체 소년범과 비교하여보면 2002년에는 115,423명으로서 1990년 105,5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다.

전체 범인 중 점유비율은 2002년 5.0%로서 13년 전인 1990년 8.0%에 비하여 약 1.6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8.0%에서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다시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소년범죄의 감소에 따라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소년범죄 중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구성비율을 보면 1999년에는 소년형법범이 78.1%, 소년특별법범이 29.1%의 비율을 보였고 2002년에는 소년형법범이 65.8%, 소년특별법범이 34.2%로 나왔다. 즉 대체로 소년형법범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소년특별법범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년 전인 1990년의 소년형법범과 소년특별법범을 2002년과 비교하여 보면 2002년에 소년형법범이 75,982명, 소년특별법범이 39,441명으로서 1990년에 비해 소년형법범이 약 1.1배 감소한 반면에 소년특별법범은 약 1.7배 증가하였다.

(2) 소년형법범 현황

<표 III-6>은 1990년 이래 소년형법범의 발생건수를 성인과 대비한 것이다.

소년형법범은 1990년의 82,446건 이후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가, 199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 85,461명(전년대비 11.7% 증가), 1996년 87,084명(전년대비 1.9%증가)이었고, 1998년에는 99,552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82,746명(전년대비 13.5%감소)이었고, 2002년에는 75,982명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하였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의 14.8%에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8.6%까지 감소하였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는 지난 13년간 1990년의 115.5명에서 2002년의 147.2명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소년·성인별 형법범 인원 및 인구비(1990년~2002년)

구분 년도	소년			성인	
	인원	소년비	인구비	인원	인구비
1990	82,446 (100)	14.8	115.5	475,921 (100)	170.0
1991	72,413 (88)	12.4	108.9	512,710 (108)	183.1
1992	67,553 (82)	11.1	102.7	539,727 (113)	188.3
1993	74,465 (90)	10.1	114.2	666,217 (140)	227.3
1994	76,534 (93)	10.4	118.3	659,778 (139)	220.4
1995	85,461 (104)	10.5	133.3	731,259 (154)	240.4
1996	87,084 (106)	8.9	137.5	889,834 (187)	286.8
1997	95,666 (116)	11.2	155.3	761,873 (160)	240.3
1998	99,552 (121)	10.2	165.0	872,950 (183)	271.2
1999	93,261 (113)	10.4	158.8	804,124 (169)	255.4
2000	94,465 (115)	9.9	166.3	858,147 (180)	258.1
2001	82,746 (100)	11.0	156.8	857,831 (180)	249.0
2002	75,982 (92)	8.6	147.2	802,645 (169)	227.2

주: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감.

2. 소년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이고, 성인인구비는 20세이상의 성인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3. 소년비는 $\left(\frac{\text{소년범}}{\text{소년범} + \text{성인범}} \times 100 \right)$.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포함.

5. ()안은 지수.

<표 III-7>은 소년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7> 소년형법범 연령층별 인원 및 인구비(1990년~1999년)

구분 년도	계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1990	82,446 (100)	1,684 (2.0)	2.4	14,705 (17.8)	20.6	28,627 (34.7)	40.1	37,430 (45.5)	52.4
1991	72,413 (100)	1,738 (2.4)	2.6	14,297 (19.7)	21.5	24,444 (33.8)	36.8	31,934 (44.1)	48.0
1992	67,553 (100)	1,816 (2.7)	2.8	15,168 (22.5)	23.1	22,303 (33.0)	33.9	28,266 (41.8)	42.9
1993	74,465 (100)	1,822 (2.4)	2.8	18,283 (24.6)	28.0	25,093 (33.7)	38.5	29,267 (39.3)	44.9
1994	76,534 (100)	1,968 (2.6)	3.0	20,791 (27.2)	32.1	26,532 (34.7)	41.0	27,243 (35.6)	42.1
1995	85,461 (100)	1,617 (1.9)	2.5	25,650 (30.0)	40.0	30,890 (36.1)	48.2	27,304 (32.0)	42.6
1996	87,084 (100)	1,720 (2.0)	2.7	26,546 (30.5)	41.9	31,044 (35.6)	49.0	27,774 (31.9)	43.8
1997	95,666 (100)	1,249 (1.3)	2.0	29,058 (30.4)	47.2	35,582 (37.2)	57.8	29,777 (31.1)	48.4
1998	99,552 (100)	1,066 (1.1)	1.8	26,141 (26.3)	43.3	36,600 (36.7)	60.7	35,745 (35.9)	59.2
1999	93,261 (100)	970 (1.0)	1.7	22,612 (24.2)	38.5	33,094 (35.5)	56.3	36,585 (39.2)	62.3
2000	94,465 (100)	978 (1.0)	1.7	25,198 (26.7)	44.1	32,586 (34.5)	57.1	35,703 (37.8)	62.5
2001	82,746 (100)	957 (1.1)	1.7	20,488 (24.4)	37.4	27,291 (32.6)	49.8	34,010 (40.6)	59.2
2002	75,982 (100)	1,125 (1.5)	2.2	19,262 (25.3)	37.3	25,137 (33.1)	48.7	30,458 (40.1)	59.0

주 : 1. 범죄분석.

2. () 안은 분포백분율.

3.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연령층별로 지난 13년간의 증감현황을 보면 14세~15세는 1990년의 14,705명에서 2002년의 19,262명으로 30.0% 증가한 반면에 14세 미만은 1990년의 1,684명에서 2002년의 1,125명으로 33.2% 감소, 18세~

19세는 1990년의 37,430명에서 2002년의 30,458명으로 18.7% 감소, 16세~17세는 1990년의 28,627명에서 2002년에는 25,137명으로 12.2%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4세~15세의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구성비를 보면 1990년에는 14세 미만이 2.0%, 14세~15세가 17.8%, 16세~17세가 40.1%, 18세~19세가 45.5%였으나 2002년에는 14세 미만이 1.5%, 14세~15세가 25.3%, 16세~17세가 33.1%, 18세~19세가 40.1%로 나타났다. 즉 구성비는 1990년에 비해 2002년의 14~15세의 점유율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다른 연령층의 점유율은 감소하였다.

인구비를 보더라도 2002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2.2명, 14세~15세가 37.3명, 16세~17세가 48.7명, 18세~19세가 59.0명으로 나타났는데, 14세~15세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3) 소년특별법범 현황

지난 13년간의 소년특별법범의 추이를 보면 <표 III-8>과 같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 들어서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39,441명으로 감소하였다. 2002년의 소년특별법범은 39,441명으로서 1990년에 비하여는 약 1.7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인 특별법범의 같은 기간의 1.3배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증가임을 알 수 있다.

<표 Ⅲ-8> 소년특별법범 현황(1990년~2002년)

구분 년도	성 인	소 년	소 년 비
1990	839,019	23,121	2.7%
1991	925,667	30,124	3.2%
1992	903,007	31,748	3.4%
1993	962,131	36,139	3.6%
1994	870,502	30,866	3.4%
1995	888,676	38,783	4.2%
1996	902,983	49,611	5.2%
1997	951,419	54,190	5.4%
1998	1,044,035	48,946	4.5%
1999	1,003,035	48,990	4.8%
2000	978,206	48,308	4.7%
2001	1,059,639	47,411	4.4%
2002	1,094,140	39,441	3.0%

주 : 1. 범죄분석.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법위반 제외.

3. 소년비는 ($\frac{\text{소년}}{\text{성인}+\text{소년}} \times 100$).

(4) 각종 청소년범죄의 현황

① 강력범죄

<표 Ⅲ-9>는 소년강력범의 지난 13년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 바, 1990년에 6,261명이던 것이 1991년에는 전년대비 43.0%, 1992년에는 전년대비 6.8% 각 감소하였으나 1993년에는 전년대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강력범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우려를 자아내었지만, 1995년에 전년대비 15.7%, 1996년에는 전년대비 10.3% 각 감소하였다. 1997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전년대비 2.3%, 1998년에는 9.1% 증가하였다가 1999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

하여 1997년에는 전년대비 0.5% 감소, 2000년에는 전년대비 13.1% 감소, 2001년에는 전년대비 20.4% 감소, 2002년에는 전년대비 22.4% 감소하였다.

<표 III-9> 소년강력범 인원 및 인구비(1990년~2002년)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포함)	방화
	인 원	전년대비증감율(%)	인구비				
1990	6,261	12.0	87.7	160	3,334	2,675	92
1991	3,568	-43.0	53.7	93	2,238	1,165	72
1992	3,324	-6.8	50.6	93	2,074	1,069	88
1993	4,662	40.3	71.5	116	2,762	1,696	88
1994	5,157	10.6	79.7	62	3,464	1,578	53
1995	4,349	-15.7	67.9	65	2,684	1,526	74
1996	3,902	-10.3	61.6	55	2,391	1,420	36
1997	3,992	2.3	64.8	60	2,996	880	56
1998	4,355	9.1	66.2	54	3,647	579	75
1999	4,332	-0.5	73.6	53	2,808	1,417	54
2000	3,762	-13.1	66.2	39	2,295	1,366	62
2001	2,994	-20.4	52.7	49	1,668	1,193	84
2002	2,323	-22.4	45.0	58	1,270	945	50

주 : 1. 범죄분석.

2.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소년강력범은 2002년 2,323명으로서 13년 전인 1990년의 6,261명에 비하여 약 2.7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소년강력범의 수를 보면 5~6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990년에는 87.7명이던 것이 1991년에는 53.7명, 1992년에는 50.6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1994년에는 79.7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995년에 67.9명, 1996년에 61.6명으로 다시 감소하다가 1999년에 73.6명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6.2명, 2002년에는 45.0명으로 다시 대폭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2004년이나 2005년에는 소년강력범의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죄명별로 보면 2002년의 경우 강도가 1,270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강간(성폭력 포함)이 945명으로 40.7%, 살인이 58명으로 2.5%, 방화가 50명으로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1990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보면 살인은 160명에서 58명으로, 강도는 3,334명에서 1,270명으로, 강간은 2,675명에서 945명으로, 방화는 92명에서 50명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소년강력범의 연령층별 현황을 보면 <표 Ⅲ-10>과 같이 대체로 성인에 근접하는 연령층의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18세~19세가 38.4%, 16세~17세가 40.4%, 14세~15세가 19.7%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0> 소년강력범 연령층별 현황(1990년~2002년)

년령층 년 도	계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1990	6,261	64	794	2,718	2,685
1991	3,568	47	465	1,488	1,568
1992	3,324	36	409	1,378	1,501
1993	4,662	60	738	1,903	1,961
1994	5,157	61	956	2,292	1,848
1995	4,349	42	866	1,891	1,550
1996	3,902	29	687	1,625	1,561
1997	3,992	18	704	1,778	1,492
1998	4,355	16	712	1,897	1,730
1999	4,332	30	706	1,846	1,750
2000	3,762	40	719	1,576	1,427
2001	2,994	46	646	1,096	1,206
2002	2,323	34	459	939	891

주: 1. 범죄분석.

2. 성폭력특별법범 포함.

② 폭력범죄

<표 Ⅲ-11>은 지난 13년간의 소년폭력범의 발생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폭력범죄라 함은 형법범 중에서 상해, 폭행, 공갈과 특별법범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말한다.

<표 III-11> 소년폭력범 인원 및 인구비(1990년~2002년)

년도	계		상 해	폭 행	공 갈	폭력행위 처 별 법
	인 원	인구비				
1990	50,075	70.2	1,119	362	247	48,347
1991	41,329	62.1	1,076	301	197	39,755
1992	36,613	55.7	894	235	244	35,240
1993	40,373	61.9	988	242	285	38,858
1994	40,518	62.6	1,143	287	378	38,710
1995	47,494	74.1	1,173	410	798	45,113
1996	48,512	76.6	1,332	500	718	45,962
1997	55,341	89.9	1,377	505	696	52,763
1998	50,987	84.5	1,453	524	484	48,526
1999	52,902	90.1	1,600	733	443	50,126
2000	54,556	96.0	1,663	846	454	51,593
2001	49,030	89.5	1,516	761	388	46,365
2002	37,740	73.1	1,107	655	348	35,630

주 : 1. 범죄분석.

2.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죄명별 범죄자 수.

소년폭력범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 50,075명을 기록한 이래 2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와 1992년에는 처음으로 40,000명 이하로 까지 하락하였는데 그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55,341명으로 50,000명을 넘어서고 전년대비 14.1%나 급증하였으며 1998년에는 50,987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0년에는 다시 54,556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02년에는 37,740명으로 급감하였다. 소년폭력범은 2002년 37,740으로서 13년 전인 1990년의 50,075명에 비하여 약 1.3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소년폭력범의 비율을 보면 1990년에는 70.2명이던 것이 그 후 약간씩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5년에는 74.1명, 1996년에는 76.6명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1997년에는 89.9명, 1998년에는 84.5명, 1999년에는 90.1명, 2000년에는 96.0명으

로 증가하였다. 2001년에는 다시 89.5명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73.1명으로 급감하였다.

죄명별로 보면 2002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35,630명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상해가 1,107명으로 3.0%, 폭행이 655명으로 1.7%, 공갈이 348명으로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죄명별로 1990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보면 상해는 1,119명에서 1,107명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48,347명에서 35,630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폭행은 362명에서 655명으로, 공갈은 247명에서 348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Ⅲ-12> 소년폭력범 연령층별 현황(1990년~2002년)

연령층 년 도	계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1990	50,075(100)	292(0.6)	5,753(11.5)	16,851(33.7)	27,179(54.2)
1991	41,329(100)	329(0.8)	5,094(12.3)	13,747(33.3)	22,159(53.6)
1992	36,613(100)	303(0.8)	5,459(15.0)	11,840(32.3)	19,011(51.9)
1993	40,373(100)	356(0.9)	7,068(17.5)	13,351(33.1)	19,598(48.5)
1994	40,518(100)	518(1.3)	7,409(18.3)	13,980(34.5)	18,611(45.9)
1995	47,494(100)	376(0.8)	11,245(23.7)	17,191(36.2)	18,676(39.3)
1996	48,512(100)	407(0.8)	11,521(23.7)	17,459(36.0)	19,125(39.4)
1997	55,341(100)	353(0.6)	13,248(24.0)	20,810(37.6)	20,930(37.8)
1998	50,987(100)	308(0.6)	9,353(18.3)	18,025(35.4)	23,301(45.7)
1999	52,902(100)	318(0.6)	9,634(18.2)	17,816(33.7)	25,134(47.5)
2000	54,556(100)	364(0.7)	10,770(19.7)	17,991(32.9)	25,431(46.7)
2001	49,030(100)	363(0.7)	9,344(19.0)	15,806(32.2)	23,517(47.9)
2002	37,740(100)	329(0.9)	7,182(19.0)	11,233(29.8)	18,996(50.3)

주 : 1. 범죄분석.

2. 폭력범은 폭행, 상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

3. () 안은 분포백분율.

소년폭력범을 연령층별로 보면 <표 Ⅲ-12>와 같이, 2002년의 경우 14세~15세가 19.0%, 16세~17세가 29.8%, 18세~19세가 50.3%이

다. 지난 13년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14세미만과 16세~19세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14세~15세의 비율만이 높아졌다.

③ 재산범죄

<표 III-13>은 지난 13년간 소년재산범죄의 죄명별 발생추이 및 인구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III-13> 소년재산범죄 인원 및 인구비(1990년~2002년)

년도	죄명	계		절 도	사 기	장 물	기 타
		인 원	인구비				
1990		25,404	35.6	22,663	1,292	653	796
1991		25,794	38.8	22,792	1,418	695	889
1992		26,268	40.0	23,455	1,343	694	776
1993		28,197	43.2	25,428	1,363	624	782
1994		30,303	46.8	26,841	1,673	812	977
1995		32,396	50.5	28,616	1,927	739	1,114
1996		34,013	53.7	29,936	2,361	663	1,053
1997		35,308	57.3	31,357	2,285	657	1,009
1998		42,795	70.9	37,981	3,263	669	882
1999		35,281	60.1	30,388	3,385	612	896
2000		35,196	61.9	30,125	3,474	520	804
2001		29,723	56.3	23,065	5,308	319	1,031
2002		34,151	66.2	24,953	8,032	298	868

주 : 1. 범죄분석.

2. 인구비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명당 죄명별 범죄자수.

소년재산범죄는 전체 소년범죄 중 폭력범죄에 이어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에 25,404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37,740명으로 약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죄명별로 보면 매년 절도죄가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2002년의 경우에는 절도의 비율이 전체의 73.0%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기 23.5%, 장물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재산범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표 Ⅲ-14>와 같이 2002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2.0%, 14세~15세가 33.7%, 16세~17세가 36.3%, 18세~19세가 28.0%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지난 13년간의 전체적인 변동 상황을 볼 때 14세~17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년재산범 역시 14세~17세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4> 소년재산범 연령층별 현황(1990년~2002년)

연령층 년도	계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1990	25,404(100)	1,231(4.9)	8,071(31.8)	8,748(34.4)	7,354(28.9)
1991	25,794(100)	1,275(5.0)	8,620(33.4)	8,900(34.5)	6,999(27.1)
1992	26,268(100)	1,383(5.3)	9,211(35.1)	8,865(33.7)	6,809(25.9)
1993	28,197(100)	1,340(4.8)	10,345(36.7)	9,518(33.8)	6,994(24.7)
1994	30,303(100)	1,239(4.1)	12,366(40.8)	10,333(34.1)	6,365(21.0)
1995	32,396(100)	1,077(3.3)	13,478(41.6)	11,455(35.4)	6,386(19.7)
1996	34,013(100)	1,170(3.4)	14,294(42.0)	11,903(35.0)	6,646(19.5)
1997	35,308(100)	789(2.2)	14,978(42.4)	12,795(36.3)	6,746(19.1)
1998	42,795(100)	674(1.6)	15,966(37.3)	16,260(38.0)	9,895(23.1)
1999	35,281(100)	540(1.5)	12,259(34.7)	13,368(37.9)	9,114(25.8)
2000	35,196(100)	491(1.4)	13,760(39.1)	12,812(36.4)	8,133(23.1)
2001	29,723(100)	463(1.5)	10,571(35.5)	10,110(34.0)	8,579(28.8)
2002	34,151(100)	682(2.0)	11,514(33.7)	12,384(36.3)	9,571(28.0)

주: 1. 범죄분석.

2. () 안은 분포백분률.

(5) 범죄자의 특징

① 가정환경

<표 III-15>는 소년범죄자중 미혼인 자들의 보호자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2년의 경우 실부모의 비율이 78.9%, 편부가 8.3%, 편모가 8.8%, 무부모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비율은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부모의 존재가 반드시 소년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5> 소년범죄자 보호자별 현황(1995년~2002년)

보호자 년도	계	실부모	편 부	편 모	무부모
1995	116,444 (100)	93,597 (80.4)	7,867 (6.8)	11,247 (9.6)	3,733 (3.2)
1996	128,839 (100)	102,840 (79.8)	9,366 (7.3)	12,436 (9.7)	4,197 (3.2)
1997	142,086 (100)	113,870 (80.1)	10,586 (7.5)	13,046 (9.2)	4,584 (3.2)
1998	140,289 (100)	110,523 (78.8)	11,515 (8.2)	13,046 (9.3)	5,205 (3.7)
1999	134,233 (100)	104,762 (78.0)	11,563 (8.6)	12,836 (9.6)	5,072 (3.8)
2000	135,950 (100)	106,797 (78.6)	11,730 (8.6)	12,168 (8.9)	5,255 (3.9)
2001	122,584 (100)	96,660 (78.8)	10,484 (8.5)	10,721 (8.7)	4,719 (3.8)
2002	107,996 (100)	85,177 (78.9)	9,017 (8.3)	9,520 (8.8)	4,284 (4.0)

주 : 1. 범죄분석.

2. 편부는 실부계모, 실부무모, 편모는 실모계부, 실모무부, 무부모는 계부모, 계부무모, 계모무부, 무부모.

3. 기혼자, 미상은 제외.

4. () 안은 분포백분률.

<표 Ⅲ-16>은 지난 13년 동안 소년범죄자중 기혼자의 인원 및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1990년에 6,931명 6.6%에서 2002년 7,358명 6.4%로 1993년의 2,510명 2.3%를 제외하고는 다소 증감이 있지만 매년 그 비율에 있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Ⅲ-16> 소년범죄자 총인원 및 기혼자 인원(1990년~2002년)

구 분 년 도	총 인 원	기혼자인원	%
1990	105,567	6,931	6.6
1991	102,537	7,306	7.1
1992	99,301	5,269	5.3
1993	110,604	2,510	2.3
1994	108,342	7,264	6.7
1995	124,244	7,633	6.1
1996	137,503	8,503	6.2
1997	150,199	7,980	5.3
1998	148,558	8,154	5.5
1999	143,155	8,804	6.1
2000	143,643	7,408	5.1
2001	130,983	8,315	6.3
2002	115,423	7,358	6.4

주 : 범죄분석.

<표 Ⅲ-17>은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의 경우 상류가 0.3%, 중류가 30.5%, 하류가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비율은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8년 동안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1995년~2002년)

생활정도 년도	계	하 류	중 류	상 류
1995	119,731 (100)	86,832 (72.5)	32,366 (27.0)	533 (0.5)
1996	132,683 (100)	94,393 (71.1)	37,738 (28.4)	552 (0.4)
1997	146,326 (100)	102,812 (70.3)	42,878 (29.3)	636 (0.4)
1998	144,743 (100)	102,184 (70.6)	42,024 (29.0)	535 (0.4)
1999	139,652 (100)	101,639 (72.8)	37,571 (26.9)	442 (0.3)
2000	140,728 (100)	98,913 (70.3)	41,402 (29.4)	413 (0.3)
2001	128,153 (100)	89,296 (69.6)	38,417 (29.9)	440 (0.3)
2002	112,558 (100)	77,875 (69.2)	34,361 (30.5)	320 (0.3)

주 : 1. 범죄분석.
 2. 미상은 제외.
 3. () 안은 분포백분률.

② 학력·직업

<표 III-18>은 지난 13년간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를 표시한 것이다.

그동안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구성비는 1990년에 5.0%나 되던 것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1993년에 3.4%나 되던 것이 2002년에는 1.4%에 불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57.2%이던 것이 2002년에는 67.7%에 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표 Ⅲ-18>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1990년~2002년)

교육정도 년 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1990	105,567 (100)	353 (0.3)	4,946 (4.7)	31,325 (29.7)	53,735 (50.9)	4,057 (3.8)	11,151 (10.6)
1991	102,537 (100)	327 (0.3)	4,571 (4.5)	30,260 (29.5)	54,270 (52.9)	3,708 (3.6)	9,401 (9.2)
1992	99,301 (100)	278 (0.3)	4,190 (4.2)	30,310 (30.5)	53,530 (53.9)	2,955 (3.0)	8,038 (8.1)
1993	110,604 (100)	164 (0.2)	3,807 (3.4)	34,097 (30.8)	60,932 (55.1)	2,905 (2.6)	8,699 (7.9)
1994	108,342 (100)	169 (0.2)	3,187 (2.9)	33,929 (31.3)	61,108 (56.4)	4,190 (3.9)	5,759 (5.3)
1995	124,244 (100)	177 (0.1)	2,896 (2.3)	39,480 (31.8)	70,199 (56.5)	5,424 (4.4)	6,068 (4.9)
1996	137,503 (100)	166 (0.1)	2,718 (2.0)	44,233 (32.2)	76,119 (55.4)	7,720 (5.3)	6,997 (5.1)
1997	150,199 (100)	171 (0.1)	2,624 (1.8)	47,287 (31.5)	84,987 (56.6)	8,895 (5.9)	6,235 (4.2)
1998	148,558 (100)	211 (0.1)	2,506 (1.7)	44,513 (30.0)	83,409 (56.1)	10,590 (7.1)	7,329 (4.9)
1999	143,155 (100)	245 (0.2)	2,346 (1.6)	40,733 (28.5)	81,367 (56.8)	12,056 (8.4)	6,408 (4.5)
2000	143,643 (100)	112 (0.1)	2,161 (1.5)	41,088 (28.6)	82,400 (57.4)	12,470 (8.7)	5,412 (3.7)
2001	130,983 (100)	221 (0.1)	2,021 (1.5)	34,444 (26.2)	74,812 (57.1)	13,971 (10.6)	5,514 (4.2)
2002	115,423 (100)	147 (0.1)	1,655 (1.4)	30,191 (26.2)	65,150 (56.4)	12,979 (11.2)	5,301 (4.6)

주 : 1. 범죄분석.

2. 전수학교, 전문학교 및 전문대학등은 각 정규학제의 해당학교에 포함.

3. () 안은 분포백분률.

<표 Ⅲ-19>는 소년범죄자의 직업별 인원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8년 동안 대체로 무직, 직공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고 학생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학생이 49.4%, 무직이 30.9%,

직공이 0.7%를 차지하여 무직의 비율이 전년대비 5.1% 증가하였는데, IMF구제금융관리체제하에서의 실업증가현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에는 학생이 51.4%, 무직이 24.7%, 직공이 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19> 소년범죄자 직업별 인원 및 구성비(1995년~2002년)

구분 년도	계	무 직	학 생	농 업	직 공	기 타
1995	124,244 (100)	32,211 (25.9)	62,168 (50.0)	437 (0.4)	2,924 (2.4)	26,504 (21.3)
1996	137,503 (100)	36,116 (26.3)	68,356 (49.7)	381 (0.3)	2,308 (1.7)	30,342 (22.1)
1997	150,199 (100)	38,749 (25.8)	78,267 (52.1)	362 (0.2)	1,736 (1.2)	31,085 (20.7)
1998	148,588 (100)	45,867 (30.9)	73,338 (49.4)	408 (0.3)	1,050 (0.7)	27,925 (18.8)
1999	143,155 (100)	23,700 (16.6)	69,445 (48.5)	363 (0.3)	1,038 (0.7)	48,609 (34.0)
2000	143,643 (100)	35,751 (24.9)	74,148 (51.6)	288 (0.2)	1,005 (0.7)	32,451 (22.6)
2001	130,983 (100)	34,568 (26.4)	64,528 (49.2)	260 (0.2)	698 (0.5)	30,929 (23.1)
2002	115,423 (100)	28,478 (24.7)	59,376 (51.4)	214 (0.2)	475 (0.4)	26,880 (23.3)

주 : 1. 범죄분석.

2. 94년은 농업에 임·수산업 포함.

3. () 안은 분포백분률.

③ 전과현황

<표 III-20>은 최근 8년간의 소년범의 전과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소년범죄자중 전과가 없는 초범은 1995년에는 75.8%, 1996년에는 72.7%, 1997년에는 70.9%, 1998년 66.4%, 1999년 63.9%, 2000년 64.5%, 2001년 63.0%로 조금씩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는 63.5%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전과 1범, 2범, 3범, 4범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으나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20> 소년범죄자 전과현황(1995년~2002년)

구분 년도	계	전과무	1 범	2 범	3 범	4범이상
1995	120,047 (100)	91,048 (75.8)	16,678 (13.9)	6,774 (5.6)	3,010 (2.5)	2,537 (2.1)
1996	133,198 (100)	96,851 (72.7)	19,643 (14.7)	8,508 (6.4)	4,207 (3.2)	3,989 (3.0)
1997	146,624 (100)	103,958 (70.9)	22,067 (15.1)	10,148 (6.9)	5,168 (3.5)	5,283 (3.6)
1998	145,174 (100)	96,407 (66.4)	23,305 (16.1)	11,538 (7.9)	6,356 (4.4)	7,568 (5.2)
1999	140,351 (100)	89,718 (63.9)	23,071 (16.4)	11,672 (8.3)	6,830 (4.9)	9,060 (6.5)
2000	140,893 (100)	90,875 (64.5)	22,608 (16.0)	11,311 (8.0)	6,536 (4.5)	9,563 (7.0)
2001	128,430 (100)	80,942 (63.0)	20,942 (16.3)	10,342 (8.0)	6,218 (4.8)	9,986 (7.7)
2002	112,812 (100)	71,662 (63.5)	18,326 (16.2)	9,036 (8.2)	5,046 (4.5)	8,742 (7.7)

- 주 : 1. 범죄분석.
 2. 미상은 제외.
 3. () 안은 분포백분률.

④ 범죄원인

<표 Ⅲ-21>은 전체 소년범죄의 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3년간 구성비 중에서 우연의 구성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우연이 25.8%로서 그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욕 16.2%로 범죄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소년의 민감한 감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1> 전체 소년범죄 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1990년~2002년)

구분 년도	계	이 욕	사행심	보 복	가 정 불 화	유 혹	우 연	기 타
1990	105,567 (100)	13,442 (12.7)	2,755 (2.6)	3,872 (3.7)	151 (0.1)	1,852 (1.8)	35,065 (33.2)	48,430 (45.9)
1991	102,537 (100)	10,060 (9.8)	1,909 (1.9)	3,012 (2.9)	149 (0.1)	2,081 (2.0)	27,687 (27.0)	57,639 (56.2)
1992	99,301 (100)	9,761 (9.8)	1,597 (1.6)	2,091 (2.1)	129 (0.1)	1,790 (1.8)	25,407 (25.6)	58,526 (58.9)
1993	110,453 (100)	10,840 (9.8)	1,633 (1.5)	1,897 (1.7)	136 (0.1)	2,961 (2.7)	25,877 (23.4)	67,109 (60.8)
1994	108,342 (100)	20,628 (19.0)	1,036 (1.0)	1,756 (1.6)	135 (0.1)	1,251 (1.2)	26,785 (24.7)	56,751 (52.4)
1995	124,244 (100)	22,122 (17.8)	1,066 (0.9)	1,492 (1.2)	134 (0.1)	1,278 (1.0)	30,813 (24.8)	67,339 (54.2)
1996	137,503 (100)	22,430 (16.3)	1,083 (0.8)	1,570 (1.1)	118 (0.1)	1,494 (1.1)	32,537 (23.7)	78,721 (57.3)
1997	150,199 (100)	22,985 (15.3)	1,157 (0.8)	2,359 (1.6)	92 (0.0)	1,914 (1.3)	35,956 (23.9)	85,736 (57.1)
1998	148,558 (100)	24,817 (16.7)	990 (0.7)	1,802 (1.2)	103 (0.1)	2,166 (1.5)	37,081 (25.0)	81,599 (54.9)
1999	143,155 (100)	23,050 (16.1)	923 (0.6)	1,547 (1.1)	140 (0.1)	1,853 (1.3)	38,807 (27.1)	76,835 (53.7)
2000	143,643 (100)	22,420 (15.6)	815 (0.6)	1,568 (1.1)	155 (0.1)	1,616 (1.1)	39,501 (27.5)	77,723 (54.0)
2001	130,983 (100)	19,633 (14.9)	599 (0.4)	1,236 (0.9)	134 (0.1)	1,277 (0.9)	36,651 (27.9)	71,453 (54.5)
2002	115,423 (100)	18,646 (16.2)	558 (0.5)	1,064 (0.9)	114 (0.1)	1,234 (1.1)	29,724 (25.8)	64,083 (55.5)

주 : 1. 범죄분석.

2. 1994년부터 원한분노를 보복으로 변경하여 산출.

3. () 안은 분포백분율.

⑤ 학생범죄자와 여자소년범

<표 III-22>는 지난 13년간 학생범죄자의 총수와 학생인구비(중학교 1학년 이상 대학교 4학년 이하의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를 표시한 것이다. 1990년에 비하여 2002년의 재학생총수는 5.6% 증가한 반면, 학생범죄자는 73.7%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인구비는 1990년에는 90.9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50.4명으로 65.4%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

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의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단순한 지식의 전수 차원이 아닌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표 Ⅲ-22> 학생범죄자의 총학생수에 대한 비율(1990년~2002년)

구분 년도	재학생총수	범죄자총수	전 년 대 비 증감율(%)	학생인구비
1990	6,051,612	55,023	5.0	90.9
1991	6,225,683	56,468	2.6	90.7
1992	6,440,543	57,051	1.0	88.6
1993	6,121,183	66,054	15.8	107.9
1994	6,288,421	69,610	5.4	110.7
1995	6,476,234	82,442	18.4	127.3
1996	6,607,947	90,790	10.1	137.4
1997	6,680,052	104,248	14.8	156.1
1998	6,686,774	102,912	-1.3	153.9
1999	6,616,633	101,330	-1.5	153.1
2000	6,531,588	109,058	7.6	166.9
2001	6,446,030	100,696	-7.6	156.2
2002	6,394,665	96,163	-4.5	150.4

주 : 1. 범죄분석, 한국통계연감.

2. 재학생총수는 중학교이상 대학교까지 각급학교학생 포함(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원제외).

3. 학생인구비는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자수.

지난 13년간 학생범죄자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표 Ⅲ-23>과 같이 1990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보면 강력범은 2,504명에서 1,520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절도범은 12,274명에서 17,269명으로, 폭력범은 23,686명에서 33,463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표 III-23> 학생범죄자의 유형별 현황(1990년~2002년)

유형 년도	계		폭 력 범		절도범		강 력 범		기 타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인 원	인구비
1990	55,023 (100)	90.9	23,686 (43.0)	39.1	12,275 (22.3)	20.3	2,504 (4.6)	4.1	16,558 (30.1)	27.4
1991	56,468 (100)	90.7	21,264 (37.7)	34.2	13,396 (23.7)	21.5	1,336 (2.4)	2.2	20,472 (36.2)	32.9
1992	57,051 (100)	88.6	19,859 (34.8)	30.8	14,084 (24.7)	21.9	1,393 (2.4)	2.2	21,715 (38.1)	33.7
1993	66,054 (100)	107.9	23,271 (35.2)	38.0	14,967 (22.7)	24.5	2,001 (3.0)	3.3	25,815 (39.1)	42.2
1994	69,610 (100)	110.7	25,376 (36.5)	40.4	17,307 (24.9)	27.5	2,109 (3.0)	3.4	24,818 (35.7)	39.5
1995	82,442 (100)	127.3	31,473 (38.2)	48.6	18,552 (22.5)	28.6	1,716 (2.1)	2.6	30,701 (37.2)	47.4
1996	90,790 (100)	137.4	32,670 (36.0)	49.4	19,076 (21.0)	28.9	1,490 (1.6)	2.3	37,554 (41.4)	56.8
1997	104,248 (100)	156.1	39,556 (37.9)	59.2	20,438 (19.6)	30.6	1,835 (1.8)	2.7	42,419 (40.7)	63.5
1998	102,912 (100)	153.9	37,077 (36.0)	55.4	23,571 (22.9)	35.3	2,151 (2.1)	3.2	40,113 (39.0)	60.0
1999	101,330 (100)	153.1	40,693 (40.1)	61.5	18,820 (18.6)	28.4	1,632 (1.6)	2.5	40,185 (39.7)	60.7
2000	109,058 (100)	166.9	44,015 (40.4)	67.3	19,919 (18.3)	30.4	1,535 (1.4)	2.3	43,589 (39.9)	66.7
2001	100,696 (100)	157.4	40,367 (40.0)	63.1	14,911 (14.8)	23.3	1,161 (1.1)	1.8	44,191 (43.8)	69.1
2002	96,163 (100)	150.4	33,463 (34.8)	52.3	17,269 (18.0)	27.0	1,520 (1.6)	2.4	43,911 (45.7)	68.7

주 : 1. 범죄분석.

2. 인구비는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지수.

3. () 안은 분포백분율.

<표 III-24>는 지난 13년간 여자소년범의 실수와 여자비를 나타낸 것이다. 여자소년범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20,488명을 기록하였고 전체 소년범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4%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18,518명으로 전년대비 9.4% 감소하였지만 전체 소년범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Ⅲ-24> 여자소년범의 인원 및 여자비(1990년~2002년)

구분 년도	계	남 자	여 자	여자비
1990	105,567	101,255	4,312	4.1%
1991	102,537	98,102	4,435	4.3%
1992	99,301	94,499	4,802	4.8%
1993	110,604	104,264	6,340	5.7%
1994	108,342	101,328	7,014	6.5%
1995	124,244	115,290	8,954	7.2%
1996	137,503	126,071	11,432	8.3%
1997	150,199	137,546	12,653	8.4%
1998	148,558	133,486	15,072	10.1%
1999	143,155	124,612	18,543	13.0%
2000	143,643	125,156	18,487	12.8%
2001	130,983	110,535	20,448	18.4%
2002	115,423	96,905	18,518	16.0%

주 : 1. 범죄분석.

여자

2. 여자비는 (-----×100).

남자+여자

3. 특별법범을 포함.

2) 『청소년백서』 자료를 활용한 분석

『청소년백서』에서 청소년비행(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이상 20세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1) 일반현황

지난 8년간 소년범죄는 <표 III-25>와 같이 1995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바, 2002년의 소년범죄는 1995년에 비하여 0.3% 감소하였으나 이에 반해 전체 범죄는 33.9%가 증가하였다.

<표 III-25> 범죄대비 청소년범죄 구성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범죄	1,804,405 (100)	2,018,296 (111.8)	2,117,759 (117.4)	2,341,431 (129.8)	2,400,485 (133.0)	2,329,134 (129.0)	2,426,050 (134.4)	2,416,711 (133.9)
소년범죄	124,244 (100)	146,986 (118.3)	164,182 (132.1)	161,277 (129.8)	150,821 (121.4)	151,176 (121.6)	138,030 (111.0)	123,921 (99.7)
구성비(%)	6.9	7.3	7.8	6.9	6.3	6.5	5.7	5.1

주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2) 청소년범죄의 분류별 현황

① 범죄유형별 현황

지난 8년간 범죄유형별 분포는 <표 III-26>과 같이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력범죄 32.2%, 재산범죄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2.2%를 차지하고 있

다. 1995년에 비하여 강력범은 48.0%, 폭력범은 16.1%가 각각 감소한 반면에 재산범은 17.4%, 교통사범은 16.8%가 각각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가 1997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6> 청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24,244	146,986	164,182	161,277	150,821	151,176	138,030	123,921
강 력 범	소 계	4,349	4,566	5,653	6,134	5,053	4,421	3,479	2,699
	살 인	65	69	79	65	71	45	49	60
	강 도	2,684	2,840	3,651	4,273	3,102	2,691	1,885	1,375
	강 간	1,526	1,599	1,840	1,703	1,709	1,515	1,371	1,122
	방 화	74	58	83	93	171	170	174	142
폭 력 범	소 계	47,523	53,165	62,218	57,080	56,757	56,711	51,095	39,911
	폭 행·상 해	46,696	52,359	61,383	56,461	56,186	56,125	50,598	39,465
	공 갈	802	769	790	557	517	488	420	386
	기 타	25	37	45	62	54	98	77	60
재 산 범	소 계	32,338	34,044	39,605	45,561	36,612	39,834	33,822	37,981
	절 도	28,616	29,936	35,177	39,894	31,162	34,236	25,926	26,484
	횡 령·배 임	1,056	955	993	887	788	1,048	981	866
	장 물	739	757	741	819	731	555	343	308
	사 기	1,927	2,396	2,694	3,961	3,931	3,995	6,572	10,323
교통사범		30,808	39,378	45,622	41,665	40,874	42,537	41,869	36,006
기 타		9,226	15,833	11,084	10,837	11,525	7,673	7,765	7,324

- 주 : 1) 강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포함
 2) 강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위반 사범 포함
 3) 폭행·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범 포함
 4) 공갈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포함
 5) 기타는 체포와감금(특가법 포함), 협박, 약취와유인(특가법 포함)
 6) 절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포함
 7) 횡령·배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포함
 8) 장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장물) 포함
 9) 사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포함
 10) 교통사범은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도주량)

② 연령별 현황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표 III-27>과 같이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36.8%이던 것이 2002년에는 33.2%로 3.6%가 낮아졌고, 15세이하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28.1%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0%로 6.1%가 낮아진 반면, 18세~19세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35.1%에서 2002년에는 44.8%로 9.7% 높아졌다.

<표 III-27>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소년범죄자	14세미만		14세~15세		16세~17세		18세~19세	
	인 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1995	124,244	2,551	2.1	32,352	26.0	45,707	36.8	43,634	35.1
1996	146,986	4,660	3.2	38,084	25.9	53,130	36.1	51,112	34.8
1997	164,182	4,093	2.5	42,786	26.1	61,622	37.5	55,681	33.9
1998	161,277	1,886	1.2	35,964	23.3	59,833	37.1	63,594	39.4
1999	150,821	1,674	1.1	30,088	19.9	53,857	35.7	64,212	43.2
2000	151,176	1,649	1.1	33,047	21.8	53,324	35.3	63,156	41.8
2001	138,030	1,656	1.2	27,606	20.0	45,964	33.3	62,804	45.5
2002	123,921	1,798	1.5	25,385	20.5	41,161	33.2	55,577	44.8

주 : 대검찰청

③ 동기별 현황

2002년의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를 보면 <표 III-28>과 같이, 우발적 범행이 25.8%로 가장 많고, 유흥비 마련 등 이욕범행이 16.2%, 다음으로 부주의가 13.5%, 취중(호기심)이 6.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28> 청소년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24,244 (100)	146,986 (100)	164,182 (100)	161,277 (100)	150,821 (100)	151,176 (100)	138,030 (100)	123,921 (100)
이 육	소 계	22,122 (17.8)	26,030 (17.0)	22,985 (14.0)	26,949 (16.7)	24,294 (16.1)	23,595 (15.6)	20,703 (15.0)	20,068 (16.2)
	생 활 비	1,691 (1.4)	2,474 (1.7)	1,947 (1.2)	2,612 (1.6)	2,548 (1.7)	2,045 (1.4)	2,070 (1.5)	2,093 (1.7)
	유 흥 비	9,155 (7.4)	9,472 (6.4)	8,686 (5.3)	9,579 (5.9)	8,732 (5.8)	8,623 (5.7)	6,349 (4.6)	5,354 (4.3)
	허영사치심	1,738 (1.4)	2,471 (1.7)	1,181 (0.7)	1,096 (0.7)	889 (0.6)	827 (0.5)	690 (0.5)	628 (0.5)
	기 타	9,538 (7.7)	11,613 (7.9)	11,171 (6.8)	13,662 (8.5)	12,125 (8.0)	12,100 (8.0)	11,594 (8.4)	11,993 (9.7)
사 행 심		1,066 (0.9)	1,383 (0.9)	1,157 (0.7)	1,080 (0.7)	965 (0.6)	858 (0.6)	552 (0.4)	607 (0.5)
원 한 분 노		1,492 (1.2)	1,870 (1.3)	2,359 (1.4)	1,806 (1.2)	1,628 (1.1)	1,650 (1.1)	1,380 (1.0)	1,135 (0.9)
취 중 (호 기 심)		12,346 (9.9)	15,637 (10.6)	15,057 (9.1)	13,805 (8.6)	9,305 (6.2)	9,428 (6.2)	7,591 (5.5)	8,520 (6.9)
우 발 적		30,813 (24.8)	34,537 (23.5)	35,956 (21.9)	40,254 (25.0)	40,887 (27.1)	41,573 (27.5)	38,648 (28.0)	32,016 (25.8)
유 혹		1,278 (1.0)	1,596 (1.1)	1,914 (1.2)	2,354 (1.5)	1,945 (1.3)	1,701 (1.1)	1,385 (1.0)	1,348 (1.1)
가 정 불 화		134 (0.1)	153 (0.1)	92 (0.06)	113 (0.07)	150 (0.1)	163 (0.1)	138 (0.1)	134 (0.1)
부 주 의		16,366 (13.2)	19,925 (13.6)	22,035 (13.4)	21,417 (13.3)	22,849 (15.1)	24,320 (16.1)	20,980 (15.2)	16,729 (13.5)
현 실 불 만		1,117 (0.9)	1,693 (1.2)	1,590 (1.0)	1,290 (0.8)	1,281 (0.8)	1,067 (0.7)	966 (0.7)	612 (0.5)
기 타		37,510 (30.2)	44,162 (30.0)	47,054 (28.7)	52,209 (32.3)	47,517 (31.5)	46,821 (31.0)	45,687 (33.1)	42,752 (34.5)

주 : 1) ()안은 점유율임

2) 이육난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육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④ 성별 현황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표 III-29>와 같이 2002년에 남자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데, 1995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9.4% 낮아진 반면에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9.4% 높아졌으며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III-29> 청소년범죄의 남녀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남 자		여 자	
	인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1995	124,244	115,271	92.8	8,973	7.2
1996	146,986	134,104	91.2	12,882	8.8
1997	164,182	150,396	91.6	13,786	8.4
1998	161,277	144,907	89.9	16,370	10.1
1999	150,821	131,275	87.0	19,546	13.0
2000	151,176	131,444	86.9	19,732	13.1
2001	138,030	116,235	84.2	21,795	15.8
2002	123,921	103,384	83.4	20,537	16.6

자료 : 대검찰청

⑤ 교육정도별 현황

2002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표 III-30>과 같이 고등학교 학력자가 56.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26.2%, 대학교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1995년에 2.3% 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2년에는 1.5%로 낮아졌고,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5년에 31.8%이던 것이 2002년에는 26.2%로 감소한 반면에 대

학교는 1995년에 4.4%이던 것이 2002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5년에 56.5%이던 것이 2002년에는
56.4%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Ⅲ-30> 청소년범죄의 교육정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 타
1995	124,244 (100)	177 (0.1)	2,896 (2.3)	39,480 (31.8)	70,199 (56.5)	5,458 (4.4)	6,034 (4.9)
1996	146,986 (100)	190 (0.1)	2,718 (1.8)	45,733 (31.1)	82,880 (56.4)	6,771 (4.6)	8,694 (5.9)
1997	164,182 (100)	171 (0.1)	2,624 (1.6)	47,287 (28.8)	84,987 (51.8)	8,852 (5.4)	20,261 (12.3)
1998	161,277 (100)	226 (0.1)	2,725 (1.7)	48,318 (30.0)	90,558 (56.2)	11,500 (7.1)	7,950 (4.9)
1999	150,821 (100)	256 (0.2)	2,472 (1.6)	42,907 (28.4)	85,731 (56.8)	12,744 (8.4)	6,711 (4.4)
2000	151,176 (100)	118 (0.1)	2,274 (1.5)	43,243 (28.5)	86,721 (57.4)	13,124 (8.5)	5,696 (3.8)
2001	138,030 (100)	276 (0.2)	2,070 (1.5)	36,302 (26.3)	78,954 (57.2)	14,356 (10.4)	6,072 (4.4)
2002	123,921 (100)	120 (0.1)	1,828 (1.5)	32,487 (26.2)	69,951 (56.4)	13,324 (10.8)	6,212 (5.0)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⑥ 가족관계별 현황

2002년 소년범죄자의 가족관계를 보면 <표 Ⅲ-31>과 같이 실부
모가 있는 소년이 73.8%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실모무부 7.6%, 실부무
모 6.8%, 무부모 3.4%, 실부계모 1.0%, 실모계부 0.6%의 순으로 1995
년도 이후에 그 비율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순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표 III-31> 청소년범죄 가족관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미 혼										기혼
		실부모	계부모	실모 계부	실부 계모	실부 무모	실모 무부	계부 무모	계모 무부	무부 모	미상	
1995	124,244 (100)	93,597 (78.4)	451 (0.4)	727 (0.6)	1,188 (1.0)	6,679 (5.4)	10,520 (8.5)	91 (0.07)	185 (0.1)	3,006 (2.4)	167 (0.1)	7,633 (6.1)
1996	146,986 (100)	112,323 (76.4)	357 (0.2)	783 (0.5)	1,307 (0.9)	8,059 (5.5)	11,656 (7.9)	90 (0.06)	953 (0.6)	2,797 (1.9)	158 (0.1)	8,503 (5.8)
1997	164,182 (100)	127,853 (77.9)	378 (0.2)	903 (0.6)	1,574 (1.0)	9,012 (5.5)	12,143 (7.4)	109 (0.07)	250 (0.2)	3,847 (2.3)	133 (0.08)	7,980 (4.9)
1998	161,277 (100)	119,991 (74.4)	404 (0.3)	1,033 (0.6)	1,807 (1.1)	10,709 (6.6)	13,128 (8.1)	113 (0.07)	162 (0.1)	4,968 (3.1)	129 (0.08)	8,833 (5.5)
1999	150,821 (100)	110,370 (73.2)	377 (0.2)	1,010 (0.7)	1,613 (1.1)	10,572 (7.0)	12,518 (8.3)	90 (0.06)	150 (0.1)	4,735 (3.1)	120 (0.08)	9,266 (6.1)
2000	151,176 (100)	112,398 (74.3)	597 (0.4)	928 (0.6)	1,756 (1.2)	10,590 (7.0)	11,878 (7.9)	107 (0.07)	84 (0.06)	4,934 (3.3)	108 (0.07)	7,796 (5.1)
2001	138,030 (100)	101,867 (73.8)	415 (0.3)	829 (0.6)	1,518 (1.1)	9,524 (6.9)	10,491 (7.6)	96 (0.07)	69 (0.05)	4,416 (3.2)	110 (0.08)	8,695 (6.3)
2002	123,921 (100)	91,481 (73.8)	247 (0.2)	753 (0.6)	1,274 (1.0)	8,406 (6.8)	9,397 (7.6)	56 (0.05)	59 (0.05)	4,261 (3.4)	117 (0.1)	7,870 (6.4)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⑦ 전과별 현황

2002년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표 III-32>와 같이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32> 청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초 범	전 과			
			소 계	1범	2범	3범이상
1995	124,244 (100)	95,245 (76.7)	28,999 (23.3)	16,678 (13.4)	6,774 (5.5)	5,547 (4.5)
1996	146,986 (100)	110,639 (75.3)	36,347 (24.7)	19,643 (13.4)	8,508 (5.8)	8,196 (5.6)
1997	164,182 (100)	121,516 (74.0)	42,666 (26.0)	22,067 (13.4)	10,148 (6.2)	10,451 (6.4)
1998	161,277 (100)	108,330 (67.2)	52,947 (32.8)	25,304 (15.7)	12,531 (7.8)	15,112 (9.4)
1999	150,821 (100)	97,475 (64.6)	53,346 (35.4)	24,312 (16.1)	12,291 (8.1)	16,743 (11.1)
2000	151,176 (100)	98,535 (65.2)	52,641 (34.8)	23,794 (15.7)	11,904 (7.9)	16,943 (11.2)
2001	138,030 (100)	87,925 (63.7)	50,105 (36.3)	22,085 (16.0)	10,904 (7.9)	17,116 (12.4)
2002	123,921 (100)	79,716 (64.3)	44,205 (35.7)	19,673 (15.9)	9,685 (7.8)	14,847 (12.0)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⑧ 공범관계별 현황

<표 Ⅲ-33>을 보면 2002년의 소년범죄자의 경우 단독범은 50.1%이고, 공범이 있는 소년범죄자 중에서는 학교동창 관계 비율이 23.9%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 9.0%, 군·직장 동료 1.0%, 친·인척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범 비율은 1995년에 41.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0.1%로 증가한 반면에 공범의 비율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33> 소년범죄자 공범관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단독범	공 범 관 계								
			소계	학교 동창	동네(고 향)친구	교도소 등동료	친·인척	애인	군·직장 동료	기타	미상
1995	124,244 (100)	51,382 (41.4)	69,234 (55.7)	33,361 (26.9)	16,538 (13.3)	113 (0.1)	1,119 (0.9)	251 (0.2)	2,306 (1.9)	15,546 (12.5)	3,628 (2.9)
1996	146,986 (100)	68,097 (46.3)	73,224 (49.8)	34,401 (23.4)	16,917 (11.5)	131 (0.01)	1,155 (0.8)	325 (0.2)	2,055 (1.4)	18,240 (12.4)	5,665 (3.9)
1997	164,182 (100)	75,622 (46.1)	81,534 (49.7)	38,907 (23.7)	17,341 (10.6)	168 (0.1)	1,191 (10.7)	294 (0.2)	1,827 (1.1)	21,806 (13.3)	7,026 (4.3)
1998	161,277 (100)	70,123 (43.5)	87,762 (54.4)	39,609 (24.6)	19,998 (12.4)	225 (0.1)	1,467 (0.9)	370 (0.2)	1,596 (1.0)	24,497 (15.2)	3,392 (2.1)
1999	150,821 (100)	69,905 (46.3)	77,945 (51.7)	34,010 (22.5)	226 (0.1)	1,478 (1.0)	17,344 (11.5)	407 (0.3)	1,646 (1.1)	22,834 (15.1)	2,971 (2.0)
2000	151,176 (100)	70,106 (46.4)	78,530 (51.9)	36,467 (24.1)	245 (0.2)	1,412 (0.9)	16,893 (11.2)	424 (0.3)	1,596 (1.0)	21,493 (14.2)	2,540 (1.7)
2001	138,030 (100)	68,739 (49.8)	66,807 (48.4)	31,611 (22.9)	276 (0.2)	1,242 (0.9)	13,389 (9.7)	414 (0.3)	1,656 (1.2)	18,219 (13.2)	2,484 (1.8)
2002	123,921 (100)	62,124 (50.1)	59,070 (47.7)	29,647 (23.9)	249 (0.2)	1,095 (0.9)	11,132 (9.0)	412 (0.3)	1,209 (1.0)	15,326 (12.4)	2,727 (2.2)

주 : ()안은 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3) 학생범죄 현황

① 연도별 현황

학생범죄는 <표 III-34>와 같이 199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의 학생범죄는 1995년에 비하여 7.3% 감소하였다.

<표 Ⅲ-34>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전체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 원(B)	구성비(B/A)	인 원(C)	구성비(C/B)
1995	1,804,405 (100.0)	124,244 (100.0)	6.9	82,442 (100.0)	66.4
1996	2,018,296 (111.9)	146,986 (118.3)	7.3	91,750 (111.3)	62.4
1997	2,117,759 (117.4)	164,182 (132.1)	7.8	103,292 (125.3)	62.9
1998	2,341,431 (129.8)	161,277 (129.8)	6.9	99,625 (120.9)	61.8
1999	2,400,485 (133.0)	150,821 (121.4)	6.3	91,942 (111.5)	61.0
2000	2,329,134 (129.1)	151,176 (121.6)	6.5	97,056 (117.7)	64.2
2001	2,426,050 (134.5)	138,030 (111.1)	5.7	85,040 (103.1)	61.6
2002	2,416,711 (133.9)	123,921 (99.7)	5.1	76,489 (92.7)	61.7

주 : ()안은 기준년도 대비율임

자료 : 대검찰청

② 동기별 현황

2002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표 Ⅲ-35>와 같이 우발적 범행이 21,293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주의가 13,186명(17.2%), 이욕이 8,409명(11.0%), 취중(호기심)이 5,487명(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846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III-35>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단위 : 명)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82,442	91,750	103,292	99,625	91,942	97,056	85,040	76,489
이 육	소 계	13,172	16,247	13,346	13,200	11,189	10,481	8,844	8,409
	생 활 비	617	671	658	707	717	540	595	538
	유 흥 비	5,169	6,611	4,886	4,323	3,724	3,562	2,381	1,846
	허영·사치심	1,126	1,324	775	598	404	367	341	232
	기 타	6,260	7,641	7,027	7,572	6,344	6,012	5,527	5,793
사 행 심		662	678	711	557	496	390	339	305
원 한 분 노		897	933	1,576	1,085	919	889	851	688
취 중(호기심)		8,263	9,638	10,486	8,776	5,737	5,910	4,932	5,487
가 정 불 화		85	65	57	59	92	108	85	76
유	혹	775	852	1,150	1,305	1,092	923	765	774
우 발 적		20,911	21,935	25,821	26,729	27,587	27,479	25,598	21,293
현 실 불 만		816	1,328	1,825	1,175	1,075	772	680	530
부 주 의		13,769	15,038	18,203	16,717	17,312	17,622	15,733	13,186
기 타		23,092	25,036	30,117	30,022	26,506	32,482	27,213	25,741

주 : 이육란의 '기타'는 도박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육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③ 유형별 현황

2002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표 III-36>과 같이 폭력범이 3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20.9%, 강력범 1.4%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방화·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그 점유율이 2.6%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점유율이 1.4%로 감소하였다.

<표 Ⅲ-36>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폭 력 범		절 도 범		강 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1995	82,442	31,491	38.2	18,552	22.5	2,140	2.6	30,259	36.7
1996	91,750	33,071	36.0	19,575	21.3	2,163	2.4	36,941	40.3
1997	103,292	39,732	38.5	21,178	20.5	2,605	2.5	39,777	38.5
1998	99,625	36,287	36.4	23,624	23.7	2,805	2.8	36,909	37.1
19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2000	97,056	38,706	39.9	20,219	20.8	2,083	2.2	36,048	37.1
2001	85,040	34,003	40.0	14,631	17.2	1,742	2.0	34,664	40.8
2002	76,489	25,977	34.0	15,987	20.9	1,092	1.4	33,433	43.7

자료 : 대검찰청

(4) 청소년 마약류사범 현황

①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지난 8년간의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실적은 <표 Ⅲ-37>과 같이 1995년의 5,418명에서 2002년에는 10,673명으로 약 2배정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 남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은 1995년의 2,767명에서 2002년에는 7,918명으로 약 2.9배나 급증하였다.

<표 III-37>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연도 약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5,418 (+18.9)	6,189 (+14.2)	6,947 (+12.2)	8,350 (+20.2)	10,589 (+26.8)	10,304 (-2.7)	10,102 (-2.0)	10,673 (5.7)
마 약	1,135 (-13.6)	1,235 (+8.8)	1,201 (-2.8)	892 (-25.7)	923 (+3.5)	2,284 (4.4)	1,482 (-35.1)	1,965 (32.6)
대 마	1,516 (+1.1)	1,272 (-16.1)	1,301 (+2.3)	1,606 (+23.4)	2,187 (+36.2)	954 (3.4)	661 (-30.7)	790 (19.5)
향 정	2,767 (+58.8)	3,682 (+33.1)	4,445 (+20.7)	5,852 (+31.7)	7,479 (+27.8)	7,066 (-5.5)	7,959 (12.6)	7,918 (-0.5)

주 : ()안은 증감율임

자료 : 대검찰청

②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002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7세가 13.9%, 10대 후반인 18~19세가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은 적발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층의 마약류 남용은 1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 사범이 2002년에 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3배나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표 III-38>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연도	14~15		16~17		18~19		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1995	0	0	17	15.7	91	84.3	108	100
1996	0	0	12	15.1	67	84.9	79	100
1997	0	0	11	16.4	56	83.6	67	100
1998	1	1.3	11	14.4	65	85.3	76	100
1999	0	0	10	20.0	40	80.0	50	100
2000	0	0	2	6.7	28	93.3	30	100
2001	0	0	2	8.3	22	91.7	24	100
2002	0	0	11	13.9	68	86.1	79	100

자료 : 대검찰청

3) 『경찰백서』 자료를 활용한 분석

(1) 사이버범죄 현황

인터넷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사이버범죄의 급증을 가져오게 되었다. <표 Ⅲ-39>와 같이 2001년 한 해 동안 모두 33,289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0년 2,444건에 비해 무려 13.6배가 증가하였다.

<표 Ⅲ-39>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 / 구분			2000	2001	증 감
총 계	발 생		2,444	33,289	+13.6배
	검 거	건수	1,715	22,693	+11.2배
		인원	2,190	24,455	+11.2배
사이버 테러형 범죄	발 생		452	10,638	+23.5배
	검 거	건수	278	7,595	+27.3배
		인원	363	8,099	+22.3배
일반 사이버범죄	발 생		1,992	22,651	+11.3배
	검 거	건수	1,437	15,098	+10.5배
		인원	1,827	16,356	+9배
조치결과		구속	229	650	+2.8배
		불구속	1,568	4,402	+2.8배
		내사종결	393	19,403	+49.4배

(2) 유형별 현황

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표 Ⅲ-40>과 같이 2001년에는 통신사기·게임사기 9,141건, 해킹·바이러스 유포 8,099건, 명예

훼손·성폭력 1,668건, 개인정보침해 926건, 불법사이트운영 7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유형별 사이버범죄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 정보 침해	통신 사기 게임 사기	불법 복제 판매	불법 사이트 운영	명예 훼손 성폭력	기타
2000	2,190	395	37	461	784	36	193	284
2001	24,455	8,099	926	9,141	1,312	722	1,668	2,587
증감	+11.2배	+20.5배	+25배	+19.8배	+1.7배	+20.1배	+8.6배	+9.1배

주) 2000년 경찰백서 통계의 전자기록 부정조작 32명은 해킹 바이러스에 포함되었음.

(3) 연령별 현황

연령별로는 <표 III-41>과 같이 10대 44%, 20대 33%로서 20대 이하가 전체 사이버범죄 사범의 77%에 이르러 오프라인의 범죄와 달리 저연령층이 주 피의자층을 이루고 있다.

<표 III-41> 2001년 사이버범죄 피의자 연령별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인원(명)	5,052	2,193	1,661	777	421
비율(%)	100	44	33	15	8

주) 5,052명은 구속·기소 인원 합함

(4) 직업별 현황

피의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표 Ⅲ-42>와 같이 학생 40%, 무직 28%, 회사원 15%, 자영업 8%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2> 2001년 사이버범죄 피의자 직업별

구분	계	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기타
인원(명)	5,052	2,039	1,398	735	404	476
비율(%)	100	40	28	15	8	9

주) 5,052명은 구속·기소 인원 합함

IV. 청소년범죄 분석내용의 주요결과와 특징

1. 추세분석의 주요결과
2. 청소년범죄의 특징

IV. 청소년범죄 분석내용의 주요결과와 특징

1. 추세분석의 주요결과

1)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주요결과

(1) 전체범죄의 증가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 1,171,380건에서 2002년 1,977,665건으로 약 1.6배 증가하였고, 인구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도 기간 중 2,737에서 4,076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발생건수는 1990년 683,474건에서 2002년 1,158,144건으로 약 1.7배 증가하였고 인구비 발생건수도 기간 중 1,597건에서 2,374건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2) 전체 형법범 및 전체 특별법범의 증가

전체 형법범의 2002년 발생건수는 572,644건으로서 1990년 240,145건에 비하여 약 2.4배가 증가하였다.

전체 특별법범은 발생건수에 있어서 형법범에 비하여 그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의 발생건수와 비교하여 보면 2002년에는 1,180,270건으로서 1990년의 931,235건의 비해 약 1.3배 증가하였다.

2) 청소년범죄의 주요결과

(1) 『범죄백서』의 주요결과

① 전체 소년범 및 전체 소년특별법범의 증가

전체 소년범은 2002년에 115,423명으로서 1990년의 105,567명에 비해 약 1.1배 증가하였다. 1990년의 소년특별법범을 2002년과 비교하여 보면 2002년에 소년특별법범이 39,441명으로서 1990년의 23,121명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는 성인 특별법범의 같은 기간의 1.3배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증가임을 알 수 있다.

② 전체 소년형법범의 감소

소년형법범은 2002년에 75,982명으로서 1990년의 82,446명에 비해 약 1.1배 감소하였다. 전체 형법범 중 소년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90년의 14.8%에서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8.6%까지 감소하였다.

③ 14세~15세 소년형법범의 증가

연령층별로 증감현황을 보면 14세~15세는 1990년의 14,705명에서 2002년의 19,262명으로 30.0% 증가한 반면에 14세 미만은 1990년의 1,684명에서 2002년의 1,125명으로 33.2% 감소, 18세~19세는 1990년의 37,430명에서 2002년의 30,458명으로 18.7% 감소, 16세~17세는 1990년의 28,627명에서 2002년에는 25,137명으로 12.2% 감소하였다.

④ 소년강력범과 소년폭력범의 감소

소년강력범은 2002년 2,323명으로서 1990년의 6,261명에 비하여 약 2.7배가 감소하였다. 소년폭력범은 2002년 37,740으로서 1990년의 50,075명에 비하여 약 1.3배가 감소하였다.

⑤ 소년재산범의 증가

소년재산범은 전체 소년범 중 폭력범에 이어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에 25,404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37,740명으로 약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⑥ 고연령층 소년강력범 높음

소년강력범의 연령층별 현황을 보면 성인에 근접하는 연령층의 점유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의 경우 18세~19세가 38.4%, 16세~17세가 40.4%, 14세~15세가 19.7%를 차지하고 있다.

⑦ 14세~15세 소년폭력범과 14세~17세 소년재산범이 높음

소년폭력범의 연령별 분포는 2002년의 경우 14세~15세가 19.0%, 16세~17세가 29.8%, 18세~19세가 50.3%이다. 지난 13년간 추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14세미만과 16세~19세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14세~15세의 비율만이 높아졌다.

소년재산범의 연령별 분포는 2002년의 경우 14세 미만이 2.0%, 14세~15세가 33.7%, 16세~17세가 36.3%, 18세~19세가 28.0%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지난 13년간의 전체적인 변동 상황을 볼 때 14세~17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학생범죄자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증가

학생범죄자는 1990년에 비하여 2002년의 재학생총수는 5.6% 증가한 반면에 학생범죄자는 73.7%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인구비는 1990년에는 90.9명이던 것이 2002년에는 150.4명으로 65.4%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 의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초등학교졸업 이하의 구성비는 1990년에 5.0%나 되던 것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1.4%에 불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57.2%이던 것이 2002년에는 67.7%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⑨ 재범자의 증가

소년범죄자중 전과가 없는 초범은 1995년에는 75.8%, 1996년에는 72.7%, 1997년에는 70.9%, 1998년 66.4%, 1999년 63.9%, 2000년 64.5%, 2001년 63.0%로 조금씩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전과 1범, 2범, 3범, 4범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으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⑩ 우발적 범죄 높음

지난 13년간 구성비 중에서 우연의 구성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2002년의 원인별 구성비를 보면 우연이 25.8%로서 그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욕 16.2%로 범죄원인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소년의 민감한 감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⑪ 여자소년범의 증가

여자소년범은 199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에는 20,488명을 기록하였고 전체 소년범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4%로 증가하였다.

(2) 『청소년백서』의 주요결과

①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전체 소년범죄는 1995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오다가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바, 2002년의 전체 소년범죄는 1995년에 비하여 0.3%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전체범죄는 33.9%가 증가하였다.

② 소년재산범 및 소년교통사범의 증가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2002년에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에 비하여 재산범은 17.4%, 교통사범은 16.8%가 각각 증가하였다.

③ 소년강력범 및 소년폭력범의 감소

2002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는 폭력범이 32.2%, 재산범이 30.6%, 교통사범이 29.1%,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이 2.2%로 나타났다. 1995년에 비하여 강력범은 48.0%, 폭력범은 16.1%가 각각 감소하였다.

④ 18세~19세의 소년범죄자 증가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 16세~17세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36.8%이던 것이 2002년에는 33.2%로 3.6%가 낮아졌고, 15세이하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28.1%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0%로 6.1%가 낮아진 반면, 18세~19세의 범죄소년은 1995년에 35.1%에서 2002년에는 44.8%로 9.7% 높아졌다.

⑤ 여자소년범의 증가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데, 1995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9.4% 낮아진 반면에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9.4% 높아졌으며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⑥ 우발적 범죄 높음

2002년의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는 우발적 범행이 25.8%로 가장 많고, 유혹비 마련 등 이욕범행이 16.2%, 다음으로 부주의가 13.5%, 취중(호기심)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⑦ 대학생범죄자의 증가

2002년 소년범죄자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학력자가 56.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학교 26.2%, 대학교가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자는 1995년에 2.3% 이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2002년에는 1.5%로 낮아졌고, 중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5년에 31.8%이던 것이 2002년에는 26.2%로 감소한 반면에 대학교는 1995년에 4.4%이던 것이 2002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자는 1995년에 56.5%이던 것이 2002년에는 56.4%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⑧ 재범자의 증가

2002년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은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⑨ 공범비율의 감소

2002년의 소년범죄자의 경우 단독범은 50.1%이고, 공범이 있는 소년범죄자 중에서는 학교동창 관계 비율이 23.9%로 제일 높고, 다음으로 동네(고향)친구 9.0%, 군·직장 동료 1.0%, 친·인척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범 비율은 1995년에 41.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0.1%로 증가한 반면에 공범의 비율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⑩ 학생범죄자의 감소

학생범죄는 1997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의 학생범죄는 1995년에 비하여 7.3% 감소하였다.

⑪ 전체 마약류사범 및 청소년 마약류사범의 증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실적은 1995년의 5,418명에서 2002년에는 10,673명으로 약 2배정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국내의 대표적 남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사범은 1995년의 2,767명에서 2002년에는 7,918명으로 약 2.9배나 급증하였다.

2002년의 청소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7세가 13.9%, 10대 후반인 18~19세가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은 적발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층의 마약류남용은 1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사범이 2002년에 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3배나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었다.

(3) 『경찰백서』의 주요결과

① 전체 사이버범죄의 급증

2001년 한 해 동안 모두 33,289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0년 2,444건에 비해 무려 13.6배가 증가하였다.

② 10대와 학생 사이버범죄의 증가

2001년의 경우 10대 44%, 20대 33%로서 20대 이하가 전체 사이버범죄 사범의 77%에 이르러 오프라인의 범죄와 달리 저연령층이 주 피의자층을 이루고 있었다. 피의자들의 직업을 보면 학생이 40%, 무직이 28%, 회사원이 15%, 자영업이 8%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범죄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동향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소년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둘째, 소년재산범과 소년특별법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재산범의 증가는 IMF 이후 경제위기 및 경제불안의 지속, 청년실업 문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

로 인해 청소년층에 의한 교통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셋째, 소년형법범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년강력범과 소년폭력범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연령층 소년강력범과 14세~15세의 소년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¹

넷째, 청소년범죄의 원인으로는 여전히 우발적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범죄자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학생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여섯째, 소년재범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은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곱째, 공범의 비율이 줄고 단독범이 증가하고 있다. 단독범 비율은 1995년에 41.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0.1%로 증가한 반면에 공범의 비율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덟째, 여자소년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데, 1995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9.4% 낮아진 반면에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9.4% 높아졌다. 오히려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홉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마약류남

용은 1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사범이 2002년에 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3배나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었다.

열 번째, 청소년범죄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범죄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소년범죄자와 대학생범죄자가 증가 하고 있다.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57.2%이던 것이 2002년에는 67.7%에 달하고, 대학교는 1995년에 4.4%이던 것이 2002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열한 번째,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 즉 소위 ‘범죄의 도시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열두 번째,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01년 사이버범죄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4%,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40%를 이루고 있었다.

V.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및 대책

1.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2.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방지대책

V.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및 대책

1. 청소년범죄의 문제점

청소년범죄의 대책은 아직도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 민간기관, 가정, 학교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더욱이 청소년범죄는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쇄신과 이들 기관사이의 유기적인 관련 하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상호협력이 부족하다.

1) 가정의 문제점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가정교육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압박감 형성이 있고, 부모가 주는 안일감과 의존감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나태주의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사랑과 신뢰감의 하락에서 오는 자기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 시키며, 부모가 자식을 자신들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시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항심을 불러일으켜 비행의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정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행동과 생활의 파악의 측면에서 볼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둘째, 훈육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범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훈육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거나 무력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문제 대응력의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범죄자들은 생활하면서 부

닥치는 삶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능력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의 문제점

학교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학교교육은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지식의 주입에만 몰두하고 있어 열등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학교의 교사가 부모의 대리자나 친구 및 애정의 상대자가 되지 못해 대화의 부족으로 학교에 흥미를 잃어 가고 있다.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종수, 1995).

첫째, 전인교육 또는 자아실현이라는 이상과는 달리 학교교육이 점차 수단화, 도구화, 비인간화하고 있다. 졸업증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학력주의를 배태시켰으며, 일류학교에 대한 병적인 선호가 학교교육을 성적위주의 입시준비 수단으로 변화시켰다. 입시위주, 성적위주로 되다보니 전인교육이나 취업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둘째, 부모의 경쟁력과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자녀 교육 능력 및 취학기회가 월등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교육에 있어서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이 심하다.

셋째, 입학, 진급, 졸업, 교사, 재정, 교육내용 등 학교교육체제가 철저히 제도화되어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고 학교의 설립, 운영부터가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중앙집권화 됨에 따라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여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넷째, 교사의 학생지도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교사에 대한 신뢰감

이 상실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하면서도 학교주변의 각종 퇴폐·향락업소의 침투, 불량청소년에의 무방비 노출 등 교육환경이 청소년의 전인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행정적 문제점

행정적 측면의 문제점으로서 1977년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책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는데, 1977년 이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으며 1980년에 해체시킨 ‘과외금지’ 이전에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빈부의식을 가져와 상대적 소외감을 증폭시켰다. 인구분산 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도시로 집중하고 있어서 쉽게 탈선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건전한 놀이문화정착을 위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 문제이다.

4)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와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

(1) 소년보호 조치 및 수사의 절차상의 문제점

현행소년법을 통하여 향상되고 있는 소년사법의 원리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나 신고 및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어 수사가 개시되어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 경찰서장이나 보호자,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직접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경찰서장등에 의한 소년부통지사건은 거의 그 예가 없어서 우리의 경우 소년사건은 거의 대부분 성인형

사사건사건처리에 익숙한 사법경찰관리, 검사에 의하여 소년부송치의 길을 걷거나 기소유예·기소가 된다. 소년사건은 40%가량이 기소되고, 이보다 약간 높은 비율이 불기소되며 10% 내외가 소년부에 송치된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소년부에 송치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불기소되는 사건처리에 있어서 많은 경우 소년범들이 가족관계, 학교생활, 직업생활이나 지역사회에 있어서 적절한 통제기능의 밖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그대로 문제가족, 문제학교, 문제직업생활, 문제지역사회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소년부는 거의 대부분의 소년보호처분사건을 1호 처분에 의하여 부모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범의 실태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물론이지만, 적기를 놓친 소년보호조치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2)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의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용위주에 급급한 실정이다. 먼저 형사처벌 받은 소년범을 수용하고 있는 김천과 천안의 소년교도소의 경우 수용인원은 과다한 반면 관리 인력은 크게 부족, 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비행성 제거 교육 보다는 수용위주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소년범의 사회복귀에 재범방지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법률신문, 1997). 둘째, 범죄학습 공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구치소가 따로 없는 관계로 미결구금 소년범들이 미결구금 성인범들과 함께 섞여 범죄학습 공간이 되는 등 재범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구치소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면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해 소년의 자질을 분류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대개 1달 정도의 수용기간 동안 소년범들이 「수용소문화」를 익혀 버리기 때문에 범죄성향이 비교적 적은 소년범들까지 범죄문화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형식적인 상담·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소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보호관찰이 사회복귀차원에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찰관의 활동도 월1회 정도의 상담을 통한 형식적인 감시·감독 위주에 그치고 있다. 넷째, 보호관찰관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보호시설위탁처분을 위한 시설이 열악한 처지이다. 이와 같이 수용자들에게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정시설내서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을 가르치고 조장시켜 역효과를 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이 오히려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설내의 처우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

5) 정책상의 문제점

(1) 인식·논리적 문제점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청소년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폭화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소년들이 점차 무례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청년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일반화된 우려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하다.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은 이미 사라졌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으며, 게다가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영화홍내내기,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편싸움, 남녀혼숙, 음주·약물남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

이 사회의 배금주의적 풍조에 물들어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범죄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개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가령 언론의 ‘청소년범죄 부각시키기’ 혹은 청소년사범 종사자들의 인원 및 예산상의 확대요구 등이 그 예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소년들이 점차 무례하고 거칠어지고 있다는 인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흔히 기성세대 혹은 부모들은 과거 자신들이 보냈던 청소년기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청소년기를 먼저 보냈으니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의 청소년들 혹은 청소년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려 한다. 나아가 청소년범죄를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청소년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은 성인들의 과거경험을 통한 일방적인 사고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보냈던 과거의 청소년기와 다른 가정, 사회조건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청소년들과 다른 사고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과거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현대사회의 청소년범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2) 공식통계의 문제점

청소년범죄를 놓고 보더라도, 그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흉폭화 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다지 큰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한 주장은 대개 공식통계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 공식통계는 청소년범죄의 양적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범죄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암수(暗數)로 남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목격자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도 모든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나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특히 금품갈취·폭행·협박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2.8%라고 한다(노성호 외, 1991 : 126). 다만, 전체 청소년범죄의 어느 정도가 암수로 남는지를 말해주는 경험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외국의 한 연구는 심지어 전체 청소년범죄의 98.5%가 암수로 남는다고도 한다(손동권, 1998 : 197).

경찰에 신고 된다고 하여 모든 청소년범죄가 공식통계에 등재되는 것도 아니다. 2001년의 통계에 따르면이라도 청소년범죄자는 14만 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경찰에서는 그 보다 훨씬 많은 39만 여명의 풍기 문란사범(싸움, 약물남용 등)을 적발하여 행위정도가 중한 261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그 나머지는 가정이나 학교에 통보하거나 훈방·조치하였다(경찰백서, 2001 : 96). 검찰과 법원 및 교정기관으로 갈수록 공식통계상의 범죄는 점차 줄어든다.

이렇게 본다면, 공식통계라는 것은 경찰·검찰·법원 등의 직무수행이 낳은 하나의 부산물로서 이들 기관에 의해 범죄로 평가되고 걸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통계는 대개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적이다. 2001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의 90% 정도는 시민들의 범죄신고가 그 단서가 되었다고 한다(경찰백서, 2001 : 190). 따라서 기준시점의 신고율을 1%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이 비교시점에 0.5%만 증가하더라도 공식통계상의 청소년범죄는 45%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통계상의 범죄증가는 신고율의 변화 이외에도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를 시사할 수도 있고, 또 소추기관들의 소추전략의 변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신고율에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이것이 공식통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식통계의 범죄증가는 실제적인 소년범죄의 증가를 반영하기보다는 차라리 신고율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즉, 공식통계는 시민들이 어떤 사건의 어느 정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인 것이다(Heinz, 1995).

(3) 연구 및 통계자료 활용의 문제점

이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전체 소년범과 학생범죄자에 대한 추세변동에 대해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범죄백서(1990~2000)』에서는 전체 소년범과 학생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사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범죄백서』는 최근 10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세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백서』는 최근 5년간의 통계자료를 추세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반연구에서는 개인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관심과 목적에 따라 추세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이용되는 통계자료의 출처는 물론 시작 시점과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범죄 추세분석의 결과는 때로는 상이하게, 때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2.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방지대책

1) 가정에서의 대책

가정은 부모의 애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로서 청소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며 활동과 생활의 본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요인은 청소년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청소년이 사회화 과정을 밟음에 있어 부모의 훈육과 감독은 청소년에게 옳고 그름의 구별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고 행동의 규범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의 적절한 훈육은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관적·독선적·훈육방법을 지양하고 객관적·민주적 훈육방법에 의한 청소년 훈육은 비행예방의 최선의 개선책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은 청소년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태도를 버리고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가치 판단력을 길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청소년의 건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가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으로서는 첫째,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지양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지나친 보호나 방임보다 다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협력자 및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교우관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으로 금기보다는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 건전한 윤리 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상의 방법들을 무리 없이 유효적절하게 실천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가정상과 청소년상이 확립될 것이며 청소년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진실한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기관에서의 대책

우리나라의 교정·보호기관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용 인원의 과다, 기능 및 처우내용의 미분화, 직원들의 자질부족 등 교정여건의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교정시설내서 범죄기술 및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을 가르치고 조장시켜 역효과를 내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력이 있다는 낙인이 오히려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설내의 처우는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각 소년교도소에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과 소년처우중 성년이 된 20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한 시설에서 획일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5~22세의 연령층은 체격등위, 사고, 욕구체계 등 정신 및 신체적 발달정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므로 소년처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이에 알맞은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처우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의 증설이 필요하다.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는 시설내 처우(교정처우)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지도·수강제도 및 갱생보호와 같은 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내 처우는 시설내 처우보다 경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범죄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효과도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내 처우의 사회화와 사회내

처우의 확대에 말미암아 민간참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선발을 합리화하고 협의기관의 조직운동을 조장하여야 한다. 사법기관과 교정보호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처우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는 재통합모델에 입각하여 개별화되고 과학적이고 사회화된 다원(多元) 처우를 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험되어야 하며 이들 프로그램에의 참가는 소년범죄자의 자발적 의사와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한다. 특히 소년원은 장·단기원생에게 적합하도록 특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시설화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설내 처우의 폐해를 고려하여 가석방과 가퇴원을 조기에 가석방율과 가퇴원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가퇴원을 심사·결정함에 있어 가석방·가퇴원 예측표를 활용하는 등 재범위험성의 판정에 과학화를 기해야 한다. 보호관찰이나 갇혀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지도감독과 보호 또는 물질적 방법과 정신적 방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법적 요구와 함께 사회적 case work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소년교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분류심사와 이를 담당할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형에 있어서 분류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효과의 기대가 어렵다. 따라서 소년교도소에 분류심사과의 설치 및 분류전담직원의 증원도 요구된다.

3) 도시화에 따른 청소년범죄 대책

도시화에 따른 청소년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발생 요인이 되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조건의 개선이나 과도한 도시화의 억제, 혹은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 문화나 지역 복지를 충실하게 하는 기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시문제는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 집중에서 오는 과밀화 및 대도시 위주의 성장에서 유래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인구의 적정배분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에서 노동력의 잉여, 도시산업의 포화상태, 시장 및 판로의 한계 등에 의해 도시의 실업율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실업자들은 기존 도시민들과는 상호간에 지역사회 공동생활에서 융화하기 어렵게 되며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불량 집단지역은 저소득자·무직자·많은 학교 중퇴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나름대로의 그 사회의 지배규범·도덕과는 별개의 비행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불량지역은 비행전통이 정상적이며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통용되고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의식이며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학습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의 학습은 비행하위문화와 접촉하므로 개인은 비행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비행행위를 합리화 해주는 문화적 제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하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서도 비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집단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각종 다양한 모순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을 정착시킬 표준을 잃어버리게 되며 이런 경우 급기야는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와 기능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도시 및 농어촌을 육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구나 도시 기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은 근본적으로 도시화 현상에 의한 청소년범죄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도시의 과도한 집중 억제에 근본 방안으로는 농어촌지역 및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이미 형성된 시가지를 재편성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도시재개발은 도시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의 내용은 공원녹지의 조성

획정리, 불량주택지구의 정비, 도로·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4) 청소년 마약류사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자에 대한 대응은 여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같은 전략으로서 사회방위에 중심을 두고 주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한 사전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는 약물남용자를 대부분 교정시설에 구금하거나 극히, 제한된 소수의 중독자에게만 공주치료감호소와 같은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국가교정정책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고 이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약물남용청소년들은 방치되어 있으며 국가교정시설에 구금된 약물남용청소년들에 대하여도 중독상황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들 보다는 정신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남용에 따른 치료방식은 다양하지 못하고, 퇴원 후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정, 학교에서의 예방 전략과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전략에 맞추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신체건강, 사회, 법률상의 부작용이나, 일단 약물을 복용한 후에 약물 끊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예방이다. 초기 예방에서는, 처음 약물복용 시작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약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최소로만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는데 이러한 초기 예방 프로그램에서 대상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다. 대개 학교에 기반을 둔 교육 과정이나

특정한 마약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약물남용의 부정적 결과나 술, 담배 등의 유해성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제2기 예방에서는 이미 약간의 약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물 남용의 정도를 제한하고(가능하다면, 약물 남용을 줄이도록 한다.) 이미 접한 약물 이상으로 약물남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알콜과 같은 합법 약물의 복용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제2기 예방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은 초기 예방 프로그램에 관계된 사람들보다 연령이 많거나 술이나 다른 약물복용자로 확인된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약물의 남용과 음주와 운전병행의 위험성 그리고 장기적인 알콜 복용의 징후에 대해 그들의 행동을 절제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강조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3기 예방에서는, 몇 가지 형태의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에 들어간 사람들이 약물 복용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도록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이것은 재발에 대한 성공적인 예방은 치료를 지속한다는 최종 지시이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에 의한 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약물남용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사후에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위한 처벌을 위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교정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아직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 되지 않은 단순투약자에게는 약물남용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하여 치료경과에 따라 처벌을 유예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중독 된 자에게는 구속하여 교정시설에 마련된 별도의 치료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것을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사, 임상 의사, 공중보건의 등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5) 청소년 사이버범죄 대책

청소년 사이버범죄는 미래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인터넷 중독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청소년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노력으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형성하여 주는 것이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이버공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이트들이 있다. 좋은 사이트들도 있지만 유해한 사이트들도 많이 있다. 이 모든 것을 경찰력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모두 감시하고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사이버공간을 건전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청소년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부분 중 가장 큰 부분이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게임업체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피해 방지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아이템을 현금 거래했을 경우, 약관 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게임 사용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게임 접속시 해킹 방지 프로그램 설치 및 확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회원 가입 증가만을 추구하여 사용자의 실명인증,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등을 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 등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완·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사이버범죄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사이버범죄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미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경미한 범죄라도 일관되게 처벌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6) 학생범죄 대책

청소년들을 좌절과 실의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학교와 교육제도를 들 수 있다. 학업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심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의 가치를 거부하며,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해 중퇴를 하거나 급기야는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학교에 애착이 낮고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제도여건 하에서는 학생범죄를 유발시키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처벌위주의 소년사법처리 절차는 필연적으로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엄청난 증대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현행 제도 하에서 ‘선도과정’은 이미 사법적 통제과정에 포착된 비행학생 및 학생범죄자를 대상으로 민간 또는 형사사법기관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프로그램 설정을 보면, 선도할 의지는 있으

나 선도를 할 기관이 거의 없으며, 소수의 민간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소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관은 거의 없다. 경찰에서도 푸른 교실 등을 운영하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들도 그 효과를 의심할 지경이다.

학생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사회학적·교육적·행정적·법률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생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각종 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언론에서 학생범죄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도하고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내려지면 각 부처에서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다. 그러나 조금 잠잠해지거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 동안의 각종 대책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7) 여자소년범 대책

여자소년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전체 소년범의 인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차 가정교육의 핵심인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끌고, 자녀에게 훈육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여자소년범을 근본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예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절실에서 가사실습 및 다도 수련과정을 실시하여 음식 만들기, 절하기, 걷는 연습, 찻잔 다루기, 상보 접기, 앉

아 있는 자세 등을 교육시킴으로써 안정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한다. 둘째, 전통계승 교육과 심성교육으로 단오제와 추석제 등 전통계승 교육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 사회를 지탱시켜 온 조상들의 윤리와 도덕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학교 상담실이나 여학생 휴게실을 항상 개방하여 고민거리를 상담하며 특히,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상담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한다. 또한 여학생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여학생들만의 학교생활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자상하게 상담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넷째, 중·고등학교에서 심성훈련과 극기 및 단체활동의 강화로 원만한 사회성과 인내력을 함양한다. 끝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8) 종합적 예방 및 방지대책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대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처우에 있어 종합적 대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범죄의 다양한 원인에 근거해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Henggeler와 그 동료들의(1992, 1997) ‘가정과 이웃보호연구’가 있다. Henggeler와 동료들의 ‘다체계적 치료’는 청소년들 이외에 가정, 학교, 친구,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사후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적인 전략을 사용하였다. 최근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여러 차원의 종합적 전략을 제시해 왔고 그 효과도 상당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혹은 상담가를 배치하거나, 또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조적 조직체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인지훈련, 부모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학업적응과 취업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종합적 지역사회 프로그램’(Kelling et al., 1997)은 또 다른 대표적인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정보 이외에 민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청소년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 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2. 청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기존연구(특히,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행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대처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청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의 대책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대책을 제시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방법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동향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소년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둘째, 소년재산범과 소년특별법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재산범의 증가는 IMF 이후 경제위기 및 경제불안의 지속, 청년실업 문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급대수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층에 의한 교통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셋째, 소년형법범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년강력범과 소년폭력범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연령층 소년강력범과 14세~15세의 소년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범죄의 원인으로는 여전히 우발적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범죄자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학생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여섯째, 소년재범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은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곱째, 공범의 비율이 줄고 단독범이 증가하고 있다. 단독범 비율은 1995년에 41.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0.1%로 증가한 반면에 공범의 비율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덟째, 여자소년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데, 1995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9.4%

낮아진 반면에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9.4% 높아졌다. 오히려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홉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마약류남용은 1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사범이 2002년에 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3배나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었다.

열 번째, 청소년범죄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범죄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소년범죄자와 대학생범죄자가 증가 하고 있다.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57.2%이던 것이 2002년에는 67.7%에 달하고, 대학교는 1995년에 4.4%이던 것이 2002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열한 번째,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 즉 소위 ‘범죄의 도시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열두 번째,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01년 사이버범죄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4%,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40%를 이루고 있었다.

2. 청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1)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 특히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으로서는 첫째,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지양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지나친 보호나 방임보다 다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협력자 및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교우관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으로 금기보다는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 건전한 윤리 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상담실이나 지역사회교육기관, 복지관, 가족지원센터 등에 부모-부부교육 및 상담, 대화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부모 자녀간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행정적, 법률적인 차원에서 학생범죄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생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각종 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학생상담실에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전반의 고민과 문제점, 욕구를 파악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자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절교육과 심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여학생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여학생들만의 학교생활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자상하게 상담하도록 한다. 또한 심성훈련과 극기 및 단체활동의 강화를 통해 원만한 사회성과 인내력을 기르도록 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4)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정·보호기관의 개선은 물론 치료적 사범 개념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치료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상담교육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정·보호기관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용 인원의 과다, 기능 및 처우내용의 미분화, 직원들의 자질부족 등 교정여건의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을 그룹홈과 같이 소규모화 하고 처우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의 증설이 필요하다.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는 시설내 처우(교정처우)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지도·수강제도 및 갱생보호와 같은 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소년교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분류심사와 이를 담당할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형에 있어서 분류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

면 교정효과의 기대가 어렵다. 따라서 소년교도소에 분류심사과의 설치 및 분류전담직원의 증원도 요구된다.

5) 청소년 마약류사범 및 약물남용 대책은 처벌위주보다는 예방 및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일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약물, 흡연, 알콜 등의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에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자에 대한 대응은 여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같은 전략으로서 사회방위에 중심을 두고 주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한 사전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에 의한 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약물남용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사후에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위한 처벌을 위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교정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아직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 되지 않은 단순투약자에게는 약물남용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하여 치료경과에 따라 처벌을 유예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중독 된 자에게는 구속하여 교정시설에 마련된 별도의 치료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것을 원할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사, 임상 의사, 공중보건의 등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6)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완·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할 예절, 사이버범죄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사이버범죄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미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경미한 범죄라도 일관되게 처벌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7) 도시화 현상에 의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억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농어촌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청소년들이 영농에 정착하여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집중화 되어 있는 도시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환경의 여건개선과 공업단지의 농어촌 분산, 농어촌에 대한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청소년범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다기관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대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기관 협력체계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비공식 사회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며, 국가기관과 비공식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범죄예방 전략을 강구한다. 지역사회 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 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권이중(1997).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과 그 대책. 사학 겨울(통권82호).
- 경찰청(2001). 경찰백서.
- 기광도(2000). 가정환경과 비행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소.
- 김기두(1983). 한국소년범의 연구. 서울:박영사.
- 김기두(1967). 한국 소년범죄 연구. 서울:박영사.
- 김길수(1970). 한국 소년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논문 고려대학원.
- 김선구(2000). 청소년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광주대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언(2000).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현실과 전망. 형사정책연구.
- 김성태 역(1982). 정신분석입문. 서울:삼성출판사.
- 김수정(2002). 정보화 사회에서 청소년범죄와 법 교육. 한국교원대 대학원.
- 김오차(2000). 청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서울:도서출판세일.
- 김영갑(2003).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1999년~2000년의 동향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
- 김영철(2003).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교회의 역할. 안양대 신학대학원.
- 김영모(1981). 현대사회 문제론. 서울:한국복지정책 연구소.
- 김영태(2000).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예방에 관한 연구: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인하대 행정대학원.
- 김준호(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 김준호 외(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청목출판사.
- 김지선(2000). 청소년비행연구 동향에 대한 수량적 고찰. 청소년학연구.

- 김찬호(2003).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 행정대학원.
- 남재봉(1999). 청소년범죄의 역사적 변화에 관한 연구:1964-1994년의 3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충북대학생활연구.
- 노성호(1994).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 노성호 외(1991).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 대검찰청(1990-2003). 범죄백서.
- 대검찰청(1970-2001). 『범죄분석』. 서울:대검찰청.
- 도종수(1995). 현대사회문제 : 청소년문제. 서울:사회문화연구소.
- 문화관광부(1998-2000). 『청소년백서』. 서울:문화관광부.
- 박상기 외(1998). 형사정책. 서울:서울형사정책연구원.
- 박상주(2001). 청소년범죄예방 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 박서열(2000). 학생범죄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 박석규(1993).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과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배종대(1998). 형사정책. 서울:홍문사.
- 법률신문(1997). 제2599호. 1면.
- 서진경(2003). 결손가정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 손호중(1992).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광섭(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서울:유스티니아누스.
- 송규섭(1988). 청소년범죄에 관한 연구:사회환경적인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진규(1995). 범죄학 겸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 신평우(2001). 청소년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 심정택(1991). 도시청소년의 지위집단별 비행요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6호.
- 심응철 · 양동규(1999). 학생 청소년의 비행경향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 염동훈(1996).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범죄. 한국청소년연구.
- 염동훈(1999). 청소년 범죄의 변화와 청소년 복지 정책. 초당대논문집.
- 원혜옥(1997). 독일과 한국의 청소년범죄 비교연구. 형사정책연구 .
- 원혜옥(2001). 가출로 인한 청소년범죄의 유형 및 대처방안.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 유화수(2000). 가정환경이 청소년범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 교육대학원.
- 윤덕중(1988). 범죄와 소년비행학. 서울:박영사.
- 윤보식(2000). 청소년범죄자의 사회내 처우에 관한 연구. 연세대관리과학대학원.
- 윤영민(2000). 청소년 인터넷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사회.
- 이동국(1997). 청소년범죄의 최근동향과 그 대책. 『교정』 .
- 이동원(2000). 청소년범죄피해 실태의 변화 : 1990년과 1999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 이모교(1982).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청소년비행연구소.
- 이상원(2000).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 이상현(1997). 범죄심리학. 서울:박영사.
- 이성식(1999). 청소년범죄에 있어 긴장과 통제 - 확대된 두 이론의 검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성식(2000). 청소년범죄의 동기로서 재미와 스릴 - 통합론적 모델의 구성과 검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성식(200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중심의 종합적 다기관 연계 전략.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 이장현(1978).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서울: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이상원(2000).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현(1992). 범죄심리학. 서울:박영사.
- 이상현(1997). 소년비행학. 서울:박영사.
- 이윤희(1995). 교정학. 서울:박영사.
- 이완문(1999). IMF 체제하의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범죄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래(1997). 소년비행의 최근동향. 형사정책연구소식.
- 이용교(1997). 청소년범죄와 청소년복지. 『국회보』.
- 임진출(1987). 국제청소년 비행문제와 대책. 서울:보건신문사.
- 장대운(1976). 청소년 범행의 요인과 범행과의 상관관계. 전북대학생생활연구소.
- 장상희(199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6집. 한국사회학회
- 장준오(1995). 청소년범죄의 사회구조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통권 제2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중앙청소년대책위원회(1975-1985). 청소년백서.
- 정병만(1993). 청소년범죄의 가정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옥근(2002). 청소년범죄와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세명대 대학원.

- 정영석(1982). 형사정책. 서울:법문사.
- 정인석(1988). 신청년심리학. 서울:대왕사.
- 조병인(1997).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법문사.
- 지광준(2001). 범죄와 청소년비행. 서울:케이엔비.
- 전광희(1993). 한국의 가족제도와 청소년범죄의 변동. 형사정책연구.
- 차성순(2001). 청소년 문제(비행, 범죄)의 특성 변화와 대책 고찰. 충북
대 교육대학원.
- 청소년대책위원회(1985). 청소년백서. 서울:국무총리기조실.
- 청소년육성위원회(1998). 청소년백서.
- 최승환(2003). 청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 및 대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
울스포츠타학원대.
- 최재석(1966). 한국 가족연구. 서울:민중서관.
- 최진식(1994). 공주시 청소년범죄 발생의 시계열적 분석과 패턴에 관
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 표갑수(1986). 청소년 비행 원인 이론. 서울:복지정책 연구소.
- 한국보호관찰학회(2000).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서
울:영진사.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문화론. 서울:한국청소년문화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
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
을 중심으로.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26회 형사정
책 세미나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소년범외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청소년범죄 추세분석:1966-1988』.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IMF시대”에 따른 범죄양상과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한국의 청소년비행 연구동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함병수 외(1991).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성체계, 법령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원.
- 황성재(2002).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 A. Cloward. Richard(1959). "Ilegitimate means, anomie, and deviant beg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 Cloward. R. A. & Ohlin. L. E(1960). Delinquence and Opportunity Glenco:The Free Press.
- Cloward, Richard A. and Lloyd E. Ohlin(1963).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 Y. :Free Press.
- E. H. Sutherland and D. R. cresse(1978). Criminology, 10thed, New York : J. B. Lippincott Co.,
- E.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1966).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 ed., (Philadephia:J. Lippincott)
- E. Durkheim(1992). Education and Siology. New York : The Free Press.
- K. Cohen(1955).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 Free Press.

- Hirschi T(1969) Cause of Delinquence Cal: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old Garfinkle(1956). "Conditions of Successful Degradation Ceremon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 H. J. Schneider/손동권 譯(1998). 암수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2호.
- R. K. Merton(1966). & R. Naisbet., (Eds), Contemporasry Social Problems(3rd.ed.,)New York : Hancourt Brace Jovanovich.
- R. K. Merton(1968). Continuities in the Theory of Social Stucture and Frame, N. Y.
- Shaw. C. R. & Mckay. H. D(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therland. E. H. & Cressy D. R(1960) Principles of Criminology. J. B. Lippincott Company.
- W. Heinz(1995). Jugendkriminalität und strafrechtliche Sozialkontroll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Festschrift für Miyazawa.

【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기존연구(특히,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청소년범죄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행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대처방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함으로써 청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청소년 및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범죄의 현황 및 추세를 분석하고 청소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의 대책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 지난 13년간의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의 동향에 대하여 고찰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소년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둘째, 소년재산범과 소년특별법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재산범의 증가는 IMF 이후 경제위기 및 불안의 지속, 청년실업문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보급 대수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층에 의한 교통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셋째, 소년형법범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소년강력범과 소년폭력범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연령층 소년강력범과 14세~15세의 소년폭력범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범죄의 원인으로는 여전히 우발적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즉흥적, 충동적인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학생범죄자의 변화추세는 『범죄백서』와 『청소년백서』의 통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범죄백서(1990~2002)』에서는 전체 학생범죄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에 『청소년백서(1995~2002)』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몇 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지는 문제점이다.

여섯째, 소년재범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은 초범이 64.3%, 전과자가 35.7%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5년에는 23.3%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35.7%로 증가하였으며, 소년범의 재범률은 1995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일곱째, 공범의 비율이 줄고 단독범이 증가하고 있다. 단독범 비율은 1995년에 41.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50.1%로 증가한 반면에 공범 비율은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여덟째, 여자소년범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년범죄자를 성별로 보면 2002년에 남자소년범은 103,384명으로 83.4%, 여자소년범은 20,537명으로 16.6%인데, 1995년에 비해 남자소년범의 비율이 9.4% 낮아진 반면에 여자소년범의 비율은 9.4% 높아졌다. 오히려 소년범죄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자소년범의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아홉째,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청소년층의 마약류남용은 1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199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청소년층 마약류사범이 2002년에 79명으로 전년대비 약 3.3배나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었다.

열 번째, 청소년범죄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청소년범죄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소년범죄자와 대학생범죄자가 증가 하고 있다.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3년에 57.2%이던 것이 2002년에는 67.7%에 달하고, 대학교는 1995년에 4.4%이던 것이 2002년에 10.8%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 진다.

열한 번째, 청소년범죄의 변화추세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로 진행된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청소년범죄의 도시집중화 현상, 즉 소위 ‘범죄의 도시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열두 번째,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01년 사이버범죄의 경우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4%, 직업별로 보면 학생이 40%를 이루고 있었다.

2. 청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 보았다.

1) 청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 특히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으로서는 첫째, 부모들은 무조건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지양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지나친 보호나 방임보다 다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협력자 및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교우관계를 설정·지도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지도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넷째, 일방적 강요보다는 훈육으로 금기보다는 권장으로 지도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준법적 태도, 건전한 윤리도덕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섯째, 부모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통하여 항상 존경받는 행동을 보이며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상담실이나 지역사회 교육기관, 복지관, 가족지원 센터 등에 부모-부부교육 및 상담, 대화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부모자식간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교육)프로그램

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행정적, 법률적인 차원에서 학생 범죄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즉 학생범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유관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각종 대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보다는 전시효과에만 급급하여 제시만 되고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학생상담실에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전반의 고민과 문제점, 욕구를 파악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여자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절교육과 심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여학생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여학생들만의 학교생활문제와 기타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자상하게 상담하도록 한다. 또한 심성훈련과 극기 및 단체활동의 강화를 통해 원만한 사회성과 인내력을 기르도록 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의 일꾼이 되도록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4)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교정·보호기관의 개선은 물론 치료적 사범개념의 도입을 통한 다양한 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상담교육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정·

보호기관의 현실을 살펴보면 수용 인원의 과다, 기능 및 처우내용의 미분화, 직원들의 자질부족 등 교정여건의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소년교정시설을 그룹홈과 같아 소규모화 하고 처우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의 증설이 필요하다.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는 시설내 처우(교정처우)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지도·수강제도 및 갱생보호와 같은 사회내 처우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소년교도소에서는 전문적으로 분류심사와 이를 담당할 직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행형에 있어서 분류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효과의 기대가 어렵다. 따라서 소년교도소에 분류심사과의 설치 및 분류전담직원의 증원도 요구된다.

5) 청소년 마약류사범 및 약물남용 대책은 처벌위주보다는 예방 및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일회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약물, 흡연, 알콜 등의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과정에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자에 대한 대응은 여타의 범죄행위에 대한 같은 전략으로서 사회방위에 중심을 두고 주로 단속과 엄한 처벌을 통한 사전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에 의한 치료보호제도와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약물남용 중독자에 대한 대응이 사후에 강력하고 엄한 처벌을 위한 처벌을 위한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을 돕는 교정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아직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되지 않은 단순투약자에게는 약물남용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불구속하여 치료경과에 따라 처벌을 유예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약물

남용으로 중독 된 자에게는 구속하여 교정시설에 마련된 별도의 치료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시설과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사, 임상 의사, 공중보건의 등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6) 사이버공간에서의 일탈행위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및 가정에서의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초·중·고 교과서에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보완·확대하여 어릴 때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 사이버범죄의 내용과 처벌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사이버범죄도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윤리 정립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자를 처벌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미래의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경미한 범죄라도 일관되게 처벌함으로써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7) 도시화 현상에 의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억제해야 하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농어촌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농어촌의 청소년들이 영농에 정착하여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집중화 되어 있는 도시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환경의 여건개선과 공업단지의 농어촌

분산, 농어촌에 대한 각종 문화시설의 확충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청소년범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기반의 종합적 프로그램으로서의 다기관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청소년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 대처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기관 협력체계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비공식 사회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며, 국가기관과 비공식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범죄예방 전략을 강구한다. 지역사회 내에 전문적인 상담가를 배치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개인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족치료, 그리고 학교적응,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비행친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인 여가활동을 격려하는 등의 종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기반의 청소년 클럽을 구성하고 이 클럽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이외에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 취업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